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4년 7월호

리아호나

부모로서 청년 성인을 양육하는 방법, 34쪽

브라질: 성장의 나라, 18쪽
상징으로 구주를 이해함, 52쪽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을 굳게 지키며 그분의 일을 하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의 교리에 굳건히 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오해나 비판, 또는 그릇된 비난까지도 받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3] 그분과 함께 서는 것은 성스러운 특권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거룩한 곳에 굳게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50쪽.

리아호나, 2014년 7월호

메시지

4 제일회장단 메시지
마음을 돌이킴에 관한 약속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변호자

8 2014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특집 기사

18 각국의 개척자들
브라질의 교회: 마침내 그 미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크 엘 그로버
브라질의 교회는 두 명의 이민자 가족으로 시작해 회원 수가 백만 명이 넘을 정도로 성장했다.

24 몰몬경, 이스라엘의 집합,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러셀 엠 넬슨 장로
몰몬경은 두 가지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30 암몬처럼 되십시오
암몬의 이야기가 우리 와드나 지부 회원들의 활동을 북돋우는 데 도움이 될까요?

34 청년 성인의 부모를 위한 열 가지 조언
웬디 울리히
5가지 어려움을 알고 10가지 제안을 고려하면 청년 성인이 된 자녀를 한결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교회 본부 기사

10 우리의 믿음
우리는 성신의 권능으로 가르친다

12 교회에서 봉사함:
구주처럼 인도함
라이언 카

14 구약의 선지자들: 엘리야

15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가르치기:
일과 자립

16 교회 소식

38 후기 성도의 소리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육지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리차드 엠 롬니
파도만 바라보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표지
앞쪽: 사진 삽화 코디 벨
안쪽: 사진 © Robert Harding World Imagery/Corbis.

청년 성인

42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
게릿 더블유 공 장로
구주의 온전함을 통해 우리는 완벽주의, 자기 비판적인 태도,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보라색 꽃을 땁니다.

청소년

48 거룩한 성약으로 기독교인들은 강하게 됩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우리는 어떻게 도덕적이고 영적인 힘을 얻습니까?

52 무엇을 보나요?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복음 의식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55 우리들 공간

56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일,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랜들 엘 리드

58 진흙투성이 신발로 파이프 옮기기
레이먼드 엠 알톤
힘들게 오전 일을 마쳤을 때, 정원회 고문 형제님이 나를 태우러 오셨다.

60 해답을 찾아서

61 포스터: 일이 항상 생각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62 올바른 동기로 봉사함
라셈 말루프
나는 장래가 유망한 축구선수였다. 정말로 내가 선교사로 봉사할 필요가 있었을까?

64 몰몬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브렌다 헤르난데스 루이스
내가 몰몬이라고 말하자 그 할머니는 나와 더는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린이

66 특별한 증인: 영을 얻기에 합당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67 신앙에 대한 나의 공과
에머 알
단 한 알의 캔털루프 씨앗에서 신앙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68 제 몸은 성전입니다.
머리사 위디슨
여러분의 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70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우리는 침례와 확인을 통해 교회 회원이 된다
제니퍼 메디

72 우리들 이야기

73 봉사하기 위한 준비
에두아르도 가바렛 장로
물은 매우 차가웠지만, 저는 그래도 침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74 전 세계 친구들
저는 브라질에 사는 페드로입니다
애미 제인 레빗

76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사라는 걷고 또 걸었다
하이디 폴먼

81 선지자 초상화: 토마스 에스 몬슨

2014년 7월호, 제51권, 제7호
리아호나 10987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호세 엘 알론소, 머빈 비 아놀드, 세인 엠 보웬, 스탠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펄 골든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너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년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니 비애티,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톤, 민디 라예 프리드만, 로리 풀러, 게릿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곤트, 제니퍼 그레이스 밸러, 마이클 알 모리스, 샐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키, 잰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폴 벤덴버그, 머리사 위디슨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놋슨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엠 벤틀리,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힝클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큰호스트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케빈 시 뱅크스, 콘니 바소프 브릿지, 줄리 버뎃,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닐슨, 가일 타테 러퍼티

사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코리스텐슨

통권: 제572호, 제51권, 제7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4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몰몬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4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uly 2014 Vol. 38 No. 7. LIAHONA (USPS 311-480) Vol. 51 No.7 Korean (ISSN 1521-479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만한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예이다.

사진 삽화: 코디 벨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 42쪽: 완벽주의에 대한 공 장로의 가르침을 사용하여 가족들에게 완벽주의 경향이 있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 OX 퀴즈를 함께 해 본다. 퀴즈에서 "실수를 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또는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다."와 같은 서술문을 사용할 수 있다. 공 장로가 구주께 의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르친 내용을 함께 읽는다. 또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 146~147쪽 내용을 활용하여,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

"제 몸은 성전입니다", 68쪽: 이 기사에 나오는 질문을 활용하여 자녀들에게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다. 과일이나 채소같이 건강에 좋은 간식을 준비하여, 자녀에게 좋은 식사 습관에 관해 가르칠 수 있다.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함으로써 자녀가 건강과 힘에 대해 감사하도록 도울 수 있다. 자녀들이 와드 또는 지부, 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너와 걷고"(*어린이 노래책*, 78)를 부를 수 있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르침, *10*
가족 역사, *4, 6, 14, 55*
가족, *34, 39, 40, 41, 80*
간증, *64*
개종, *18*
개척자, *18, 76*
결혼, *41*
계명, *60*
구약전서, *14*
몰몬경, *24, 30, 38, 55*
봉사, *12, 56, 58, 62, 73*
부름, *12*
부모 본분, *34*
선교 사업, *18, 30, 62, 64*
선지자, *14, 81*
성신, *10, 40, 66*
성약, *24, 48*
성전, *18*
성찬, *52, 70*
속죄, *7, 42*
신앙, *48, 67*
영원한 관점, *42, 80*
예수 그리스도, *7, 12, 42*
육신, *68*
의식, *52, 70*
일, *15, 56, 58*
재림, *24*
청년 성인, *34*
침례, *52, 70, 73*
확인, *52, 70*
활동 촉진, *30, 38*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마음을 돌이킴에 관한 약속

제 어머니인 밀드레드 베니언 아이어링은 미국 유타 주 그랭거라는 농촌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형제 중 한 분인 로이 외삼촌은 가업인 양목축업을 물려받으셨습니다. 외삼촌은 어린 시절, 집을 떠나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삼촌은 교회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어 갔습니다. 마침내 외삼촌은 미국 아이다호 주로 떠나셨으며,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셨습니다. 삼촌은 3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때 외숙모는 28세셨고 아이들도 아직 어릴 때였습니다.

외삼촌의 가족은 아이다호 주에 있었고 제 어머니는 4,025킬로미터나 떨어진 미국 뉴저지에 사셨지만, 어머니는 사랑과 격려를 담은 편지를 자주 보내셨습니다. 외삼촌의 가족들은 제 어머니를 "미드 고모"라는 애칭으로 정겹게 불렀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어느 날 외사촌 중 한 명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홀로 계시던 외숙모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외사촌은 "미드 고모도 너에게도 소식을 전하길 바라셨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외삼촌 가족은 여전히 그분의 사랑을 느꼈기에 제게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족 안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셨는지를 알고 놀랐습니다. 마치 니파이인 선지자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했던 역할과도 같았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친척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니파이는 자기 형제들의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자 했기에 가족의 족장인 리하이의 신앙으로 되돌아오길 바란다는 소망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도 리하이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같은 사랑을 보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지속될 가족 안에서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마음이 가족들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세에서 구원 의식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가족들의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은 이름을 성전으로 가져갑니다. 침례의 물가에 들어설 때, 젊은이들은 그들이 대리 의식을 행하고 있는 가족들의 사랑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저는 아직도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던 외사촌의 다정한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미드 고모도 너에게도 소식을 전하길 바라셨을 거야."

가족을 위해 의식을 수행하는 분들은 모사이야의 아들들과 선지자 니파이가 그랬듯이, 사랑으로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여러분의 수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암몬이 느낀 것과 같은 커다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를 나눈 먼 친척들에게로 나아가 선교 사업을 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스러워하자,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영광스러워하리라.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리니, 이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참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보라, 누가 주 안에서 지나치게 영광스러워할 수 있느냐? 참으로 누가 그의 크신 권능과 그의 자비와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오래 참으심을 지나치게 말할 수 있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내가 느끼는 바의 지극히 적은 부분도 말할 수 없노라."(앨마서 26:16)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친척들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임을 간증합니다. 그는 정말로 왔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고,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고 있습니다.(말라기 4:5~6, 조셉 스미스 역사 1:38~39 참조) 조상의 이름을 찾아 성전에 제출해야겠다고 소망할 때, 여러분은 그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킴에 관한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 어머니인 밀드레드 베니언 아이어링은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로이 외삼촌의 가족을 사랑하셨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외삼촌의 가족들은 제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고, 그들의 마음을 미드 고모를 향한 사랑으로 돌이켰습니다.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가정을 방문하여 엘리야의 영에 관한 예언을 함께 읽어 볼 수 있다.(말라기 4:5~6, 조셉 스미스–역사 1:38~39 참조) 색인 작업, 사진 촬영 및 수집, 블로그 운영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가족 역사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해 본다. 그들이 familySearch.org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면, 시간을 할애하여 그 방법을 보여 주는 것도 좋다.

할머니와 더 가까워지기

주엘렌 카터

청녀 활동 중의 하나로, 나는 우리 할머니를 돕는 일에 자원했다. 할머니는 미국 애리조나 메사에 있는 가족 역사 센터에서 마이크로필름에 기록된 조상을 찾고 계셨다. 나란히 앉아 가족들을 찾고 있을 때, 나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지금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에 대해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할머니와 나는 돌아가신 친척들을 많이 찾았고,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여 그분들의 침례와 확인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애리조나 메사 성전으로 갔다. 오래지 않아, 할머니는 나에게 가족 역사 수집철 한 권을 주셨다.

할머니는 류머티스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셔서, 타자를 칠 때 매우 아파하신다. 나는 컴퓨터로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이 무척 즐겁다. 할머니와 함께 나는 우리 가족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한다. 이 활동을 함께 하면서, 내가 할머니 인생의 한 부분이 되고, 교회 역사에 관해 많이 배우게 되어서 정말 좋다.

글쓴이는 미국 버지니아에 산다.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천지 다 웃어 주고
사랑 넘치네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찬송가*, 174장)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더 많이 봉사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 삽화 나탈리 후프스 카터, 왼쪽: 삽화 캐슬린 피터슨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어떤 것을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구주의 삶과 사명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울 수 있고, 방문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돌보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가?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ds.org에서 알아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변호자

구주의 사명에 관한 여러 측면을 소개하는 방문 교육 메시지 연재 기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해리 앤더슨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 변호자(Advocate)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간청하는 사람"[1]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에 어원을 둔다. 구주께서는 이해심과 공의, 자비로서 우리를 위해 애원하신다. 이를 알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마음이 가득 찰 것이다.

"아버지께 대한 변호자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는 아버지 앞에 너희 문제를 변호하고 있나니-

아뢰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요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한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을 보시옵소서. 당신 아들의 흘린 피를 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영광을 얻으시려고 주신 자의 피로소이다.

그러하온즉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믿는 이 나의 형제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내게 나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45:3~5)

변호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제가 어떤 순간에서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의 변호인이 되시며, 죄 없이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저를 위해 변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저로서는 대단히 기쁜 일이며,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2]

추가 성구

모사이야서 15:8~9; 모로나이서 7:28; 교리와 성약 29:5; 교리와 성약 110:4

생각해 볼 점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도록 어떻게 영감을 주는가?

신앙, 가족, 구제

경전에서

주님 교회의 역사 전반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여제자들은 그분의 모범에 따라 생활했다. 에스더는 충실하고 용감했다.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개는 유대인을 멸하라는 왕의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보내어 알리고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에스더 4:8, 14)

위험천만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다음과 같이 동의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에스더 4:16)

에스더는 왕에게 겸손히 청하면서 "왕의 발 아래 엎드려 …… 울며 구하[였다] ……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내가 어찌 ……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차마 보리이까?"라고 말했다. (에스더 8:3, 5~6 참조) 왕은 마음이 풀렸고, 그녀의 간청을 들어 주었다.[3]

주

1. 러셀 엠 넬슨,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며 그 이상의 분이심",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4쪽; 참조.
2.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제가 의지하고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83쪽.
3.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 (2011년), 181쪽 참조.

2014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4년 4월 연차 대회를 복습하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리 살펴보기

결혼과 순결

"[최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법률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적 율법이 변하지는 않으며,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선택 사항이나 경향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옹호하고 지킬 것을 기대하십니다. 순결의 법은 분명합니다. 성적인 관계는 합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맺어진 남녀 사이에서만 합당합니다.'

세상이 주께서 주신 순결의 법에서 멀어져 가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많은 나라의 정부에서, 또한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을 재정의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남자와 여자, 아담과 이브 사이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성인의 개인적 만족과 성취를 훨씬 넘어섭니다. 더 중요한 목적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양육을 받을 이상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늘이 주신 보물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닐 엘 앤더슨 장로, "영적인 회오리바람",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9쪽.

어려운 주제에 관련된 질문과 우려에 대응하는 방법을 lds.org/go/andersen714에서 앤더슨 장로의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약속

용기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용기, 즉 아닐 때에는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 맞을 때에는 맞다고 할 수 있는 용기, 또 어떤 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 저는 이런 내적인 용기에다, 두려울지라도 옳은 일을 행하고, 조롱받을 위험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수호하고, 친구나 사회적 지위를 잃는 위협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 마땅히 해야 하는 방식으로 생활하려 노력하고 전진할 때, 분명히 주님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서 위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강하고 담대하라",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66, 67, 69쪽.

몬슨 회장이 이야기한 용기를 키우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lds.org/go/monson2714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구원 사업을 서두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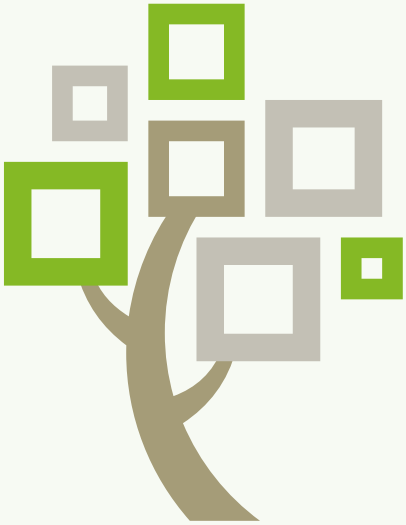
연차 대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몇몇 주제에 관해 두 명 이상의 연사가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구원 사업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세 명의 연사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 "우리의 [선교 사업] 메시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전달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1] —엠 러셀 밸라드 장로, lds.org/go/ballard714에서 밸라드 장로의 권유에 대해 더 알아보십시오.
- "애리조나 길버트 성전[은] …… 이제 교회에서 운영 중인 142번째 성전이 되었습니다. …… 기존에 발표했던 성전이 모두 완공되고 나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170개의 성전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2]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더 많은 내용을 lds.org/go/monson714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 두고 …… [우리의] 성약에 충실하[며]' [교리와 성약 25:10, 13],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분을 따르라고 명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일입니다!"[3] —린다 케이 버튼. lds.org/go/burton714에서 버튼 자매의 말씀을 시청하십시오.

주

1. "확인하기",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78쪽.
2.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쪽.
3. "사람 구함: 구원 사업을 서두를 힘과 마음을 지닌 사람",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22쪽.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청취, 또는 다른 사람과 나누려면 **conference.lds.org**에 접속하십시오.



"패밀리 트리 모임"을 하는 방법

"우리는 마침내 많은 가족들이 이 영광스러운 구원 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교리와 성전,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 가족들이 모여서 '패밀리 트리 모임'을 해 보십시오. 이런 모임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 "뿌리와 가지",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7쪽.

1. 가족과 함께 모여서 역사, 이야기, 사진, 가보를 공유합니다.
2. 패밀리 트리에 이야기와 사진을 올리고 출처 문서를 조상들과 연결시킵니다.
3. 성전 의식이 필요한 분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가족들과 임무를 분담합니다.

가족 역사를 통해 축복을 받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 가르친 쿡 장로의 말씀을 lds.org/go/cook714에서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성신의 권능으로 가르친다

우리는 성신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필수적인 부분임을 믿는다. 효과적인 가르침은 복음에 따라 살고자 하는 신앙과 소망을 키워 준다. 교회에서 공과를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전한다. 그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경전에 대해 토론할 때나 이웃에게 신권에 대해 설명할 때에도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교회의 장로, 제사와 교사는 복음의 충만함이 들어 있는 몰몬경과 성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리를 가르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성약과 교회의 신조를 지켜 준행할지니, 그들이 영의 지시를 받는 대로 이러한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 될지니라.

그리고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니하거든 가르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12~14)

이제부터 소개하는 '효과적인 가르침을 위한 4가지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들을 이해한다. 가르칠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 사항에 대해 생각한다.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한다. 각기 다른 교수법으로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 (오른쪽에 나오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참고한다.)
- **영으로 가르친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사람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할 때에는 성신의 권능이 그것을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전함이라."(니파이후서 33:1) 가르칠 때, 간증을 전하고 경전 및 후기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사용함으로써 성신의 영향력을 불러들일 수 있다. 가르칠 준비를 하면서 성신의 인도를 구한다. 성신은 최상의 교수법을 알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
- **교리를 가르친다.** 경전, 연차 대회 말씀, 교재 등 교회의 승인을 받은 교과 과정 자료에는 교리 즉,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담겨 있다.
- **부지런히 배우도록 권유한다.** 가르침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 역시 배움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한다. 공과를 듣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주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복음 원리에 따라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상고하도록 격려한다. 그들이 원리에 따라 생활하면 그러한 원리에 대한 간증이 자라날 것이다.(요한복음 7:17 참조)

고든 비 힝클리(1920~2008) 회장은 훌륭한 가르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했다. "영생은 모든 남녀가 *효과적인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욱 굳건히 세울 때 찾아올 것입니다. 이들을 의로움이나 천국으로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인도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인도란 곧 가르침을 의미합니다."(제프리 알 홀런드,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26쪽에서 인용함.) ■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교리와 성약 50:13~22;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년), 5.5.4를 참고한다.

다음은 다양한 학습 방식으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교수법이다.

성스러운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 부른다. 찬송가 및 초등회 노래로 교리를 가르치면서 주님의 영을 초대할 수 있다.

경전과 여러분의 경험을 포함하여, 마음을 고양시키는 이야기와 예를 나눈다.

배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숙고하고 나누도록 자극하는 질문을 한다.

그림 및 실물을 보여 준다. 복음 원리를 씨앗, 바위, 식물 및 다른 친숙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가르치고 있는 복음 원리에 대해 간증한다. 간증을 나누면 성신이 진리의 증인이 되어 준다.

삽화: 데이비드 하베

구주처럼 인도함

라이언 카
교회 잡지

세계 최악의 지도자와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지도자인 구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스펜서 더블유 킴볼(1895~1985)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역사에서 인류에게 굉장히 비극적인 영향을 미쳤던 지도자들은, 엄밀히 말해, 그 정도가 어떻든 갈릴리 사람 예수가 지녔던 자질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심이 없었던 반면에 그들은 이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유에 관심이 있던 반면에 그들은 통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봉사에 관심이 있었던 반면에 그들은 지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 사항을 채워 주신 반면에, 그들은 오직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의 발전에 관심이 있었던 반면에, 그들은 사람들을 조종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의와 균형을 이룬 동정심으로 가득했던 반면에, 그들은 너무도 자주 가혹함과 부당함으로 가득 찼습니다."[1]

주님의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훌륭히 봉사하려면, 반드시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음 개념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며]"(교리와 성약 4:5) 봉사한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6:38)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는 "육신의 팔"(니파이후서 4:34)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겸손하게 기도로 인도를 구한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의존하는 대신에,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사업을 하기 위해 그분의 때와 방식을 추구한다.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는 교회에서 직분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름을 승진이 아니라 봉사의 기회로 여긴다. 또한 해임을 좌천이라 여기지 않는다. 해임은 모든 부름에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는 종들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고, 격려한다. 그들은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축복하고자 한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셨다.]"(니파이후서 26:24) 그들은 자신을 주님의 대표자로 여기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돕는다.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발전을 돕고자 한다. 킴볼 회장은 또한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당신의 사업을 함께 나누어 행하실 정도로 그들을 신임하시어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저는 지도자로 봉사해 본 경험이 없는걸요!"

아직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영감에 따라 권세를 지닌 사람을 통해 부름을 받았다.(신앙개조 제5조 참조) 주님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알고 계신다. 사람들을 이끄는 부름은 장점을 계발하고 약점을 극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업체나 다른 조직에서는 흔히 지도력 훈련 및 경험의 유무가 중요한 자질이 되나 주님의 방식은 이와 다르다. 로렌조 스노우(1814~1901)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부르[신] …… 사도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학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유대에서 높은 직책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했으며 비천한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 그렇다면 주님은 다른 방법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름을 주십니다."[1]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격을 주신다![2]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2012), 151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봉사하도록 부름받음", *리아호나*, 1996년 7월호, 43쪽 참조.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도력에 관한 그분의 가장 위대한 교훈의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 일은 올바르게 될지 모르지만, 뒤따르는 사람들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진리와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더 많이 주었지만 그들을 압도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키우기에 충분한 만큼 주셨습니다."[2]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잘 인도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3]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지도력에 접근하는 진수이다. ■

주

1. 스펜서 더블유 킴볼, "예수님: 완전한 지도자", *성도의 벗*, 1983년 8월호, 7~11쪽.
2. 스펜서 더블유 킴볼, "*예수님: 완전한 지도자*", 7~11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284쪽.

교회 회원들과 상담하는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교회 회원들을 만날 때,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 주길 바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들의 성장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 회원들은 즉각적인 해결을 기대하며 왔을 수도 있으나 대개 그런 문제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 신권 지도자들이 제안한 다음 질문들이 회원들과 상담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책임이라는 태도로 회원들을 상담하고 돕고 있는가?
- 회원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인도하고 있는가?
- 회원들이 하겠다고 동의한 일들을 추후에 다시 확인하는가?
- 회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자원을 찾도록 도와주는가?
- 회원들에게 주님께 의지하도록 격려하는가?
- 상담을 통해 회원들이 발전하도록 격려하고 있는가?

물론, 같은 상황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영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사랑, 인내, 영에 민감함을 지니고 봉사하면, 좋은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

엘리야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중 한 명이며, 주님께서 그에게 인봉 권능을 주셨습니다.”[1]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

저는 이스라엘의 북왕국에서 선지자로서 성역을 베풀었습니다.[2]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악했기 때문에, 저는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늘을 봉하여 땅에 기근이 임하게 했습니다. 기근 동안, 저는 시냇가에서 살았으며 까마귀들이 음식을 가져다주었는데, 얼마 후에는 그 시내도 말라 버렸습니다.[3]

주님께서는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고 명하셨으며, 그녀가 제게 음식을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부에게 먼저 저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면, “[주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4]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신앙을 행사했으며,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가 그 가족과 살고 있었을 때, 과부의 아들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간청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5] 주님께서는 저의 간구를 들으셨고, 과부의 아들은 생명을 되찾았습니다.[6]

나중에 저는 바알 제사들과 경합을 벌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바알의 제사들은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바알에게 불을 내려 달라고 하루 종일 외쳤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제단을 쌓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팠습니다. 그런 다음 물 열두 통을 가져다 제단과 희생 제물에 부었습니다. 물은 나무를 적시고 도랑에도 가득 찼습니다. 제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불을 내려 주셨으며, 불은 희생 제물과 제단을 태우고 도랑의 물도 말려 버렸습니다. 후에, 제가 기도를 드리자 주님께서는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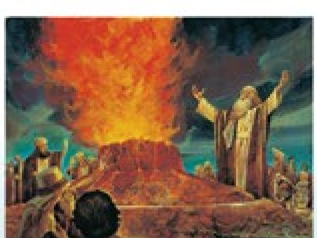
생애 마지막에 저는 죽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8]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저는 변형의 산에 나타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신권 열쇠를 주었습니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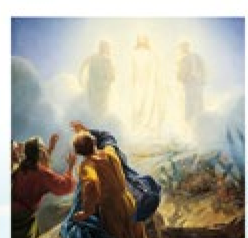
저는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자 다시 나타났습니다.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으로 와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인봉 권능의 열쇠를 회복해 주었습니다.[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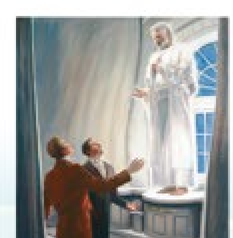
주

1. Joseph Fielding Smith, *Answers to Gospel Questions*, ed.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1966), 4:193.
2. 경전 안내서 “엘리야”; scriptures.lds.org 참조.
3. 열왕기상 17:1~7 참조.
4. 열왕기상 17:8~16 참조.
5. 열왕기상 17:21 참조.
6. 열왕기상 17:8~24 참조.
7. 열왕기상 18장 참조.
8. 열왕기하 2:11 참조.
9. 마태복음 17:3; 경전 안내서 “변형”; scriptures.lds.org 참조.
10. 교리와 성약 110:13~16 참조.

ELIJAH RAISES THE WIDOW'S SON FROM DEATH, 로버트 티 배렛; *ELIJAH CONTENDS AGAINST THE PRIESTS OF BAAL*, 제리 하스튼; *ELIJAH ASCENDING INTO HEAVEN*, 더블유 에이치 마겟슨, 교회 역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게재; *THE TRANSFIGURATION*, 칼 하인리히 블로흐, 덴마크 힐레뢰드 프레데릭스보르 국립 역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게재; *ELIJAH APPEARING IN THE KIRTLAND TEMPLE*, 다니엘 에이 루이스; 까마귀 삽화: KOZH/ISTOCK/THINKSTOCK







일과 자립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자립하는 것을 배울 때,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바지"(*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11], 40쪽)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호 56~57쪽에서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인 랜들 엘 리드 형제는 부친과 함께 건축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을 나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좋은 태도를 지니며,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리드 형제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일은 현세에서 자립과 성취, 기쁨의 원천입니다. 즐겁게 일할 때, 여러분이 심은 씨앗 덕분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을 가르치기 위한 제언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는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열심히 일하십시오."(40쪽)라고 나온다. 자녀들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몰몬 메시지 비디오 "발전해 나감"을 시청하는 것도 좋다.(mormonchannel.org/come-follow-me에서 결혼 및 가족 비디오 참조) 그런 후에 함께 목표를 수립하고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때 일은 훨씬 더 쉬워진다. 이번 호 58~59쪽에 나오는 "진흙투성이 신발로 파이프 옮기기"를 읽고 여러분의 태도가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한다.
- "인터넷, 비디오 게임, 텔레비전 시청과 같은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게으름의 한 형태입니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40쪽) 자녀들에게 인터넷, 비디오 게임, 텔레비전의 유익과 위험에 관해 물어본다. 여러분이 집중하는 데 이러한 것들이 방해가 된 적은 언제인가? 생산적인 일을 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잠시 모든 첨단 기기를 뒤로하고 함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녀들이 이런 축복들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을 고려한다.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한 제언

- 선교 사업은 힘든 일이다. 자립의 원리를 배우면 자녀들이 그 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녀들과 함께 선교사들이 마땅히 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 집안 일(예를 들어, 세탁, 요리, 청소)의 목록을 만든다. 그런 다음 그중 몇 가지 일을 함께 해 본다.
- 리드 형제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상기시켜 준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게 주님의 일을 진척시킬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데려오기 위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해 본다.
- 자립의 일부는 재정 관리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예산을 세우는 원리 및 십일조를 예산의 일부로 삼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

이 주제에 관련된 성구

이사야 55:2
니파이후서 5:17, 27
모사이야서 4:16–21
교리와 성약 58:26~29
조셉 스미스—역사1:55

삽화: 타이아 몰리

교회 소식

더 많은 교회 소식과 행사를 보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유엔 행사에서 후기 성도 자선회를 조명하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는 최근 후기 성도 자선회(LDS Charities)의 활동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개최했다. "몰몬이즘의 발견 및 인도주의적 원조에서의 몰몬이즘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이 토론은 유엔의 민간 조직 분야인 공보 부서의 후원을 받아 신앙을 집중 조명하는 시리즈의 일환이었다.

패널 토론 사회자이자 스페인 지역 교회 회원인 유엔 공보 담당 보좌관 펠리페 퀘이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다른 신앙 조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관용, 상호 존중이라는 공통적인 기본 원리를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논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화해하겠다는 서약을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후기 성도 자선회 대표로 토론에 참여한 샤론 유뱅크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과 모든 종교적 신조, 사회 철학, 국적, 부족, 성별 혹은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에게 봉사하고 북돋우며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기본 의무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연설에서 고통받는 이를 구제하고 자립을 촉진하며 모든 나라의 가족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후기 성도 자선회의 공식 목적을 되새기기도 했다. 그녀는 후기 성도 자선회의 핵심 목표는 정수 사업, 신생아 소생술, 시력 보호, 휠체어 전달, 예방 접종, 음식 및 응급 상황 대처라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또다른 후기 성도로는 교회 홍보 및 국제 관계부 뉴욕 사무실 대표 아마드 에스 콜빗, 그리고 아내 바버라와 함께 후기 성도 자선회 유엔 대표로 봉사하고 있는 존 피 콜튼이 있었다.

콜빗 형제는 "세계의 모든 종교에는 선한 의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3년 후기 성도 자선회에서 132개국, 약 2백만 명에게 어떻게 도움을 제공했는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

유엔에서 개최한 패널 토론에 참여한 교회 대표들.

새로 부름받은 선교부 회장

제일회장단은 2014년 7월부터 지명받은 지역에서 봉사하게 될 122명의 새로운 선교부 회장 부부를 불렀다.

필리핀에서 도움과 위안을 전하는 지도자들

지난 2월, 태풍 하이옌이 타클로반을 강타한 지 100일 만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린다 케이 버튼 자매와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인 캐럴 에프 맥콩키 자매가 피해 지역을 방문해 도움과 위안을 전했다.

버튼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자매들을 안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빼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타클로반에 와서 제가 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안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중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은 가옥 110만 채 이상을 파손하고 후기 성도 42명을 포함하여 6,2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남겼다. 폭풍이 지나간 후 교회는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지역 및 국제 조직과 연계하여 음식, 대피소, 식수 정화, 잔해 제거, 생계 복구를 지원했다.

버튼 자매와 맥콩키 자매 모두 성도들 사이에서 희망과 낙관적인 태도를 보았으며, 성도들은 자신의 가옥을 재건하고 서로에게 봉사하며 간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캐럴 에프 맥콩키 자매가 필리핀 타클로반 스테이크 센터에서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타이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많은 나라에서 성역을 수행하는 사도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멈추지 않고 전 세계의 교회에서 성역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사도들의 임무 수행 중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본다.

- 러셀 엠 넬슨 장로와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피지, 뉴칼레도니아, 통가, 파푸아뉴기니의 성도들에게 권고를 전하고 목표를 제시했다. 넬슨 장로는 가족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앤더슨 장로는 회원들에게 기뻐해야 함을 상기시켰다. 앤더슨 장로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지진과 열대 폭풍으로 비탄에 빠진 필리핀 지역의 회원들과 지역 사회 지도자들을 만났다.
-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멕시코시티 선교사 훈련원을 헌납했다. 옥스 장로는 선교사들에게 열심히 배우고 주님께 헌신하라는 당부를 전했다.
- 엠 러셀 밸라드 장로는 남미 남 지역 성도들에게 남미 대륙에 450만 명에 달하는 성도들과 성전 14곳을 갖게 된 것을 상기시키며, "리하이의 아들딸들의 날이 꽃피고 있다."고 말했다. 밸라드 장로의 조부인 멜빈 제이 밸라드(1873~1939)가 남아메리카가 교회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그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타이완과 홍콩 성도들에게 성전에 가능한 자주 참석함으로써 성전을 생활의 일부로 삼으라고 권고했다.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우간다 성도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고국에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들임을 상기시켰다. 케냐 성도들에게는 가정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보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했다.
-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중앙 아메리카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서로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다.

사도들의 성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려면 lds.prg/prophets-and-apostles에 접속한다. ■

NOITE
DE
NOIVAS

브라질의 교회:

마침내 그 미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크 엘 그로버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퇴직한 라틴 아메리카학 교수

면적과 인구 양쪽 면에서 브라질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나라이다. 그렇지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엔 적은 인구만 살고 있어서 열대 기후, 기름진 땅, 풍부한 미네랄과 물과 같은 자연이 주는 풍요로운 혜택을 그 소수만이 누릴 수 있었다.

한편, 이 땅에 흥미를 느낀 맥스와 아말리에 재프는 아예 브라질에 정착해서 살기로 했다. 그들은 1908년에 독일에서 교회에 가입한 회원이었으며, 브라질에는 1913년 3월에 이주해 왔다. 재프 부부는 브라질에 사는 최초의 교회 회원이 되었으며, 그들은 많은 약속이 깃든 나라에 살게 되어 큰 기대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남아메리카에는 아직 우리 교회가 없었기에, 맥스와 아말리에는 교회에 참석하며 회원들과 교류하는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를 곧 알게 되었다.[1]

브라질에서 10년을 지낸 후, 맥스와 아말리에 재프는 충실한 교회 회원인 아우구스타 리펠트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1923년에 네 자녀를 데리고 비회원인 남편과 함께 독일에서 브라질 남부에 있는 산타카타리나 주로 이민을 왔었다. 재프 가족은 리펠트 가족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산타카타리나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2년 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남아메리카 선교부가 개설되었다. 두 번째 선교부 회장인 케이 비 레인홀드 스투프는 독일 출신으로, 브라질 남부에서도 독일 이민자 인구가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영감을 받았다. 그는 1928년에 두 명의 선교사, 윌리엄 프레드 하인즈와 에밀 에이 제이 쉰들러를 독일 이민자가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인 조인빌리에 파견했다. 1930년, 스투프 회장은 재프와 리펠트 가족을 방문하여 지부를 세웠으며, 마침내 두 가족은 함께 교회에 참석하며 성찬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100년의 세월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재프 가족이 이주한 1913년 이전까지는 브라질에 어떤 회원도, 선교사도, 교회 조직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브라질에는

몰몬경의 포르투갈어 번역을 도왔던 다니엘 슈페를 포함한 이 선교사들이 1930년대 후반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봉사했다.

대전이 발발하여 철수하기 전까지, 선교사들은 온 나라를 누비며 수많은 도시에서 봉사했다. 전쟁이 끝난 후 선교사들은 다시 돌아왔고 [주님의] 사업이 개진되었다.

상파울루 주 캄피나스 시에서는 몇몇 젊은 남녀가 교회에 들어왔고, 그들은 충실하게 남았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카마르고는 이 초기 회원 중 한 명이다. 그는 십 대였던 1947년에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교회 회원과 사귀어 결혼했으며, 1954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나중에는 유타 대학교에서 수학했다. 1963년, 카마르고 형제가 섬유 회사에 고용되면서 그 부부는 브라질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교회의

편년

1928: 최초의 선교사들을 브라질 조인빌리에 사는 독일어권 주민들에게 파견함.

1930: 조인빌리에서 첫 번째 지부가 조직됨.

▼ 1931: 조인빌리에서 남아메리카 최초의 교회 소유 집회소가 헌납됨.

► 1935: 상파울루에 본부를 둔 첫 번째 선교부가 조직됨.

백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살고 있으며, (미국과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교회 회원 수가 많은 국가가 되었다. 현재 브라질의 모든 주와 주요 도시에 교회 회원들이 분포해 있다. 맥스와 아말리에의 후손들은 특별하고 흥미로운 역사를 지닌 강하고 활기찬 교회의 혜택을 흡족하게 누리고 있다.

참나무처럼 성장할 것입니다

1926년,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십이사도 정원회 멜빈 제이 밸라드 장로는 이 지역이 처음엔 성장이 더디겠으나 언젠가는 강대해질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다. 밸라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도토리가 참나무로 서서히 자라나듯 이곳에서도 잠시 동안은 주님의 사업이 느릿하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금세 자라서 바로 시들어 버리는 해바라기처럼 하루 아침에 급속하게 성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1935년에 문을 연 브라질 선교부 초창기에는 소수만이 교회에 들어왔다. 국가 공식 언어가 포르투갈어로 변경된 1940년까지 교회는 주로 독일어로 운영되었다. 제2차 세계 성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1954년에 미국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미국인 선교사들이 감리하는 몇 안 되는 작은 지부만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 있던 9년 동안, 거의 만육천 명에 이르는 브라질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며, 그 안에는 강한 지도력과 충실히 헌신하는 젊은 가족들이 많이 있었다. 안토니오는 이같이 말했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기 상파울루에서 선택하신 고귀하고 위대한 영들이었습니다." [3]

브라질 선교부가 개설되고 31년 후인 1966년, 상파울루에 남아메리카 사상 최초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던 스펜서 더블유 킴볼(1895~1985) 장로는 월터 스패트를 회장으로 성별하여 스테이크를 조직했으며, 안토니오는 제2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새로운 지도자 중에 제 역할을 하는 스테이크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미리 안토니오를 준비시켜 두셨다. 그는 미국에 있는 동안 교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스테이크 회장단을 도운 경험도 있었다. 첫 번째 스테이크 내 와드 및 지부 지도자들은 이후에 조직된

많은 다른 스테이크의 지도자가 되었다. 스테이크 조직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면서 온 나라에 그들의 영향력이 파급되었다.

성장의 시대

브라질에서 교회의 더 큰 성장을 촉진시킨 예상치 못했던 한 가지 요인은 성전 건축 발표였다. 회원들은 성전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대부분은 사진으로만 성전을 보았었다. 가장 가까운 성전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에 있었다. 1975년 3월, 브라질을 방문한 킴볼 회장은 지역 대회에서 상파울루 성전 건축을 발표했다. 큰 기대와 경제적인 희생 덕분에 성전은 1978년에 준공되었다. 회원들은 기부를 통해 성전 건축 비용 지불을 도왔다. 많은 회원들이 소유한 자동차, 보석, 토지를 매각해서 기부금을 마련했다.

1978년 6월, 신권에 관한 계시(공식 선언-2 참조)가 있은 후, 10월과 11월에 성전이 헌납되었다. 이 계시는 브라질에 있는 모든 합당한 회원이 헌납식에 참여하며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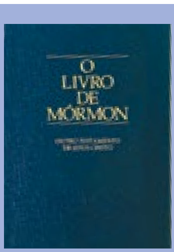
신권 계시와 성전 헌납은 브라질에서 유례없는 선교 사업의 성공을 일군 요인이 되었다. 그 후 20년간 700,000명이 넘는 브라질인들이 교회에 가입했다.

이 외에도 교회의 성장을 촉진하는 여러 사건이 있었다. 브라질은 정치적 및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었는데, 이는 교회 성장의 발판이 된 중요한 요인이었다. 많은 브라질인들이 도심지로 이동했으며, 새로운 종교를 더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에 킴볼 회장은 브라질인 스테이크 회장들에게 선교사로 봉사할 브라질 청소년 수를 늘리도록 목표를 주었다. 머지 않아 브라질 출신 선교사 수는 브라질 내 선교사의 절반 이상이 되었다. 이 귀환 선교사들은 후에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봉사했다.

그러나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한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회원들의 경험 부족이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회원들은 더욱더 서로의 신앙을 키우고 영적인 인도를 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 예로, 1992년 11월에 브라질 서부의 우루과이아나에 한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는데, 그곳은 기존 스테이크들과 가장 멀리 떨어진 스테이크였다. 충실하고 오래된 교회 회원인 호세 칸디도 페레이라 도스 산토스는 새로 조직된 스테이크의 축복사로 부름받았을 때 근심에 휩싸였다. 그는 총관리 역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축복사가 될 수 없습니다. 축복사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축복사를 만나 본 적도 없고, 축복사의 축복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총관리 역원이 한 가지 해결책을 제안했다. 근처 도시인 알레그레테의 새로운 축복사인 루이 안토니오 다빌라 역시 최근에 부름을 받았는데, 산토스 형제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두 축복사는 서로 축복사의 축복을 주어야 했다.

다빌라 형제에게서 축복을 받을 때, 산토스 형제는 그 축복사가 전혀 알 리가 없는 자신의 과거와 개인적인 소망에 관해 축복하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 산토스 형제가 다빌라 형제의 머리에 축복을 줄 차례가 되었을 때, 역시나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다시 한 번 눈물이 흘러내렸다. 축복을 주고 받은 두 형제는 방금 일어난 일들을 깊이 이해하며 서로 부둥켜안았다.[4] 영감에 따라 서로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준 그 첫 경험과 똑같이, 그들은 영의 인도를 받아 수백 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축복을 주었다. 주님께서는 교회 봉사 경험이

► *1939: 포르투갈어 몰몬경이 출판됨.*



1954: 데이비드 오 멕케이가 교회 회장으로서는 최초로 브라질을 방문함.

1959: 두 번째 선교부가 조직됨.

1966: 남아메리카 최초의 스테이크인 브라질 상파울루 스테이크 조직.

► *1978: 상파울루에 남아메리카 최초의 성전이 헌납됨.*

조인빌리 예배당 사진: 칼 레인홀드 스투프; 오른쪽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 사진: 마르셀로 스파타포라

부족한 나라에 그렇게 수많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베푸셨다.

영구 교육 기금

회원들 사이에 교육의 부족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었다. 대개 선교사들은 귀환하고 나면 영적으로는 잘 준비되었으나 적절한 직업을 얻을 만한 교육은 받지 못한 상태였다. 상파울루에 있는 한 스테이크의 회장인 헤이날도 바레토는 이렇게 설명했다. "일자리를 찾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은 전진하려는 소망을 잃었으며, 심지어는 선교 사업을 통해 얻은 영적인 힘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열쇠는 대부분 교육에 있었다.

2001년,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영구 교육 기금을 수립했으며, 그것으로 수천 명의 브라질인 귀환 선교사들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영구 교육 기금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 더 나은 직업을 얻게 되었다. 회원들은 가족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있었으며, 교육을 더 받을 수도 있었다. 브라질에서 영구 교육 기금 프로그램 관리자가 된 바레토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젊은 회원들이 교육을 마치고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을 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참된 성공은 그들의 확신이 커져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큰 희망을 품습니다."[5]

헌신적인 회원들

브라질에서 교회의 힘은 회원 수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그들의 헌신에 그 원천을 둔다. 예를 들어, 은퇴한 항공 관리자인 겔슨 피찌라니는 브라질에 새로운 항공사를 창립하라는, 도전적이고 큰 수입을 보장하는 직책을 제안받았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아내 미리암과 함께 브라질 브라질리아 선교부를 감리하라는 부름이 왔다. 무엇을 해야 할지 머뭇거릴 것도 없었다. 십 대 때 침례를 받은 이래로, 그들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

◀ *1985: 헬리오 알 카마르고 장로가 최초의 브라질 출신 총관리 역원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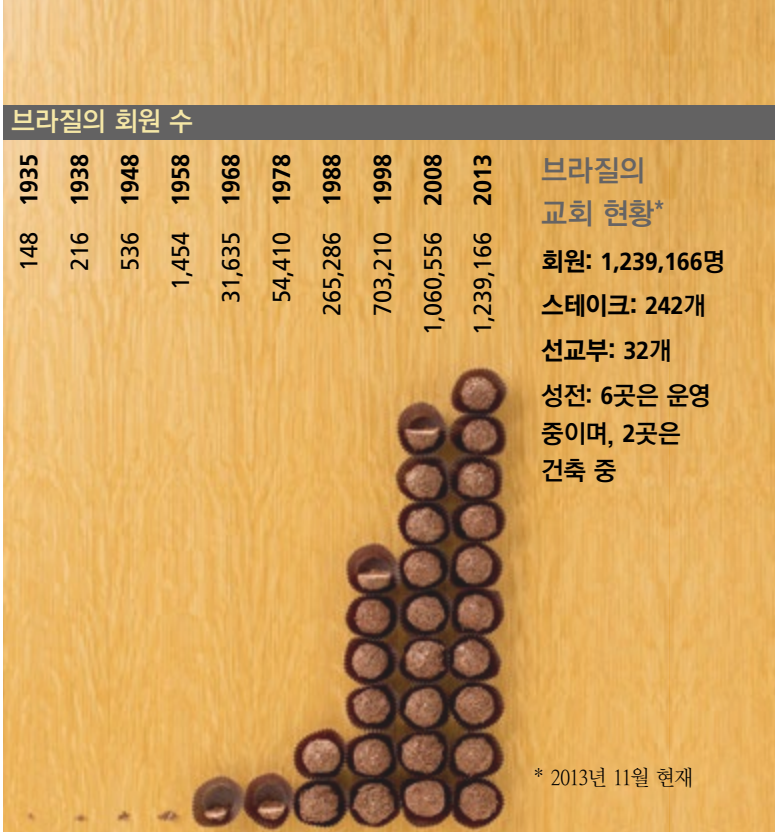
1986: 브라질이 50개 이상의 스테이크가 있는 네 번째 나라가 됨.

1987: 브라질 지역이 세워짐.

1993: 브라질이 100개 스테이크가 있는 세 번째 나라가 됨.

◀ *1997: 교회에서 두 번째로 큰 선교사 훈련원이 상파울루에 세워짐.*

1999년 이래로, 수천 명의 브라질인 회원들이 몰몬 도움의 손길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해 왔다.



왔다. 결혼 전에 피찌라니 형제는 지부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25세에는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받았으며, 지역 칠십인을 포함하여 수많은 부름에서 봉사해 왔다. 피찌라니 자매는 스테이크 및 와드의 상호부조회, 청녀, 초등회 부름에 봉사했다. 그녀는 복음의 축복에 대한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했다. "저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그 덕분에 살아오는 동안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지키는 모든 계명에 대해 축복을 받아요."[6]

브라질리아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후, 가정에서 안온하게 지내려던 피찌라니 부부의 계획은 브라질 캄피나스 선교부 회장으로서 단기 봉사에 임하라는 부름으로 잠시 중단되었다.

▲ *2000: 브라질 헤시피 성전 및 포르투알레그리 성전이 헌납됨.*

2002: 캄피나스 성전이 헌납됨.

2002: 몰몬 도움의 손길이 브라질의 가장 중요한 자원봉사 단체 중 하나로 전국적인 인정을 받음.

◀ *2008: 쿠리치바 성전이 헌납됨.*

▲ *2012: 마나우스 성전이 헌납됨.*

몇 개월의 휴식 후, 피찌라니 부부는 2013년 브라질 헤시피 성전의 회장과 메이트론이 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피찌라니 형제에게 침례를 주었던 선교사 중 한 명이 아내와 함께 헤시피 성전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제 헤시피 성전에서는 이 선교사와 개종자가 함께 봉사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사업 기회를 포기한 피찌라니 부부의 모범은 감동적이지만 브라질의 충실한 회원들 사이에서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재프 가족이 브라질에 도착한 이래로 1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으나 때때로 좌절의 시기도 찾아왔다. 그러나 브라질을 방문한 선지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신앙을 나타내 보였다. 그 예언은 브라질이 경제 성장과 발전 면에서 세상에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실현되고 있다. 문자 그대로의 후손뿐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 모두가 재프 가족의 후손이며, 그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노력한 초기 회원들의 노고와 인내의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다. 1926년에 멜빈 제이 밸라드 장로가 한 예언의 두 번째 부분이 성취되었다. "수천 명이 이곳에서 교회에 가입할 것입니다. 선교부가 여러 곳으로 나뉘고 교회에서 가장 강한 조직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

주

1. 마이클 랜든이 시빌라 해크 누네스(맥스와 아말리에 재프의 손녀)와 한 인터뷰, 브라질 쿠리치바, 2004년 7월 30일, 교회 역사 도서관.
2. Melvin J. Ballard, Bryant S. Hinckley, *Sermons and Missionary Services of Melvin Joseph Ballard* (1949), 100.
3. 마크 엘 그로버가 안토니오 카를로스 카마르고와 한 인터뷰, 브라질 상파울루, 2006년 7월 27일, 해롤드 비 리 도서관, 22쪽.
4. 마크 엘 그로버가 호세 칸디도 페레이라 도스 산토스와 한 인터뷰,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2010년 5월 4일, 해롤드 비 리 도서관; 마크 엘 그로버가 루이 안토니오 다빌라와 한 인터뷰,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2010년 5월 5일, 해롤드 비 리 도서관.
5. 마크 엘 그로버가 헤이날도 데 소우자 바레토와 한 인터뷰, 브라질 상파울루, 2006년 6월 16일, 해롤드 비 리 도서관 14쪽.
6. 마크 엘 그로버가 미리암 다 실바 술레 피찌라니와 한 인터뷰, 브라질 상파울루, 1982년 3월 21일, 해롤드 비 리 도서관, 7쪽.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몰몬경, 이스라엘의 집합,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몰몬경의 출현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모으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은 성약을 성취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실제적인 표적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는 5장 전체를 몰몬경에 할애합니다. 이 장에서 몰몬경에 관해 가르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몰몬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이다.
-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 몰몬경은 성경을 뒷받침한다.
- 몰몬경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질문에 답을 준다.
- 몰몬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끈다.

이러한 주장들은 절대적인 사실이기는 하지만, 필멸의 존재인 우리의 관점에서 본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몰몬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분들의 시각은 틀림없이 모든 인류에게 하신 두 가지 오래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약속은 서로 연관되며, 제대로 기록되었으며, 여전히 유효하지만,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겠다고 하신 고대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오래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성약과 이스라엘의 집

아브라함의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은 아비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모든 나라의 백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와 성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포함된 또 다른 중요한 내용 또한 정해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후에 이삭과 야곱에게 재확인된 이 약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방대한 자손[1]
- 특정한 땅을 상속받음.[2]
-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든 나라에까지 미치는 신권을 지니며,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복을 받을 것임.[3]
-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입양됨.[4]
- 세상의 구주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올 것임.[5]

아브라함의 후손인 고대 이스라엘의 지파 중 많은 사람이 결국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열

지파는 앗수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잊히지는 않았지만, 그 시점부터 인류의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두 지파는 한동안 남아 있었으나 반란을 일으킨 죄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아왔을 때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다시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짐과 집합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비통해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먼 곳으로 널리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우리 안으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을 흩으시겠다는 약속만큼 확실했습니다.[6] 예를 들면, 이사야는 주님이 후기에 "흘러 나누인" 이들 백성에게 "사자"를 보내시는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이사야 18:2, 7)

이미 예언되었듯이 이 경륜의 시대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고대해 온, 흩어진 이스라엘의 집합은 이 회복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7] 이스라엘의 집합은 주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전주곡이므로,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약속과 연결됩니다.[8]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시각은 변함없이 뚜렷합니다.

집합이란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표적을 주어, …… 내가 그들의 오랜 분산에서 내 백성을 모아들여,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그들 가운데 내 시온을 다시 세울 때라."(제3니파이 21:1)

몰몬경의 출현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모으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은 성약을 성취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실제적인 표적입니다.[9]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휘장 양쪽에서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모으는 일을 도움으로써 말입니다.

자비롭게도, "그리스도께 나아오라"(야곱서 1:7)[10]는 권유는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사망한 사람들에게까지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11] 휘장 저편에 있는 이들을 대신해서 해야 할 준비의 일환으로, 휘장 이편에 있는 이들이 지상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로 모일 수 있도록 족보를 수집하고, 가계도를 만들며 대리로 성전 사업을 합니다.[12]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이 경륜의 시대가 하늘과 지상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때가 될 것임을 예견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배도의 기간 후 회복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사도행전 3:19, 21)

주님은 우리 시대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내셔서 "[그분] 왕국의 열쇠와 마지막 때를 위한 그리고 충만한 때를 위한 복음의 경륜"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며, 이때에 그분은 "하늘에 있거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실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27:13)[13]

아브라함의 성약은 여러 면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혈통, 즉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 오셨습니다. 땅은 오래전에 상속을 위해 배분되었습니다. 후기 성도판 성경 지도는 지파들이 상속받은 땅이 어떻게 르우벤, 시므온, 유다, 잇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베냐민,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의 자손에게 배분되었는지를 보여 줍니다.[14] 요셉이 성지에서 상속을 받은 것 외에도, 우리는 몰몬경에서 요셉의 집의 남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땅이 있었으며, 그곳이 바로 미대륙임을 배웁니다.[15]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위대한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경전 곳곳에 나오는 집합에 관한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흩어짐에 관한 예언처럼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16]

재림에 대한 전주곡인 집합

집합에 관한 이 약속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까닭은 세상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이스라엘이 집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몰몬경은 이런 *두 가지* 하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17]

몰몬경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몰몬경은 주님께서 친히 참되다고 증거하신 유일한 책입니다.[18] 그 책은 니파이와 야곱, 몰몬과 모로나이로부터 온, 또한 영감을 받아 이를 번역하고 순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선물입니다. 몰몬경은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에게 전하는 책입니다.[19]

재림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 일이 "지금 가까이 왔고 장차 …… 있을 일"(교리와 성약 63:53)이라는 것을 압니다. 구주께서는 다시 오실 때 비밀리에 오시지는 않을 것입니다.[20] 그러기까지 이스라엘을 모으고 세상이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하려면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경륜의 시대에 집합함

우리는 몰몬경이 있기에 약속된 이 집합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압니다. "그런 연유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후일에* 이루어질 성약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자손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집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니, 그 성약은 곧 주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라. 이르시되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나이다."(니파이전서 15:18; 강조체 추가)

성도들은 어디에 살든, 주님의 축복을 똑같이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안전은 언제나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지, 어디에 사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에게 약속된, 궁극적이며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600년 전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집합이 "후일에"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예로운 이름 *아브라함*은 후기 성도에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각 회원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21]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아브라함의 성약을 재확인하셨습니다.[22] 우리는 성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에게 약속된, 궁극적이며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23]

우리는 그런 하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약을 알고, 약속된 이스라엘의 집합을 이루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특권이 *왜* 주어졌는지를 알고, 또 고대 족장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게 되었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24] 요셉과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집합을 이끄는 자손이 되었으며,[25] 다른 지파들은 그들을 따라야 했습니다.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 귀중한 신권 열쇠를 가지고 온 하늘의 사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836년 4월 3일, 주님이 커틀랜드 성전을 받아들이시자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을 모으[는] …… 열쇠"(교리와 성약 110:11)를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일라이어스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맡기며 이르기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뒤의 모든 세대가 복을 받으리라 하더라."(교리와 성약 110:12) 그렇게 회복의 일환으로 아브라함의 성약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런 다음, 말라기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와서 인봉 권세를 회복했습니다.[26] 이런 열쇠들은 집합한 이스라엘 가족을 인봉하여 그들이 모든 축복 중 가장 큰 축복, 즉 영생을 누리게 하는 데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몰몬경을 보실까요? 그분들은 몰몬경을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증거로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분의 복음을 믿으며 교회에 가입하게 하는 도구,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과 우리의 관계를 밝히는 문서로 여기십니다.

몰몬경은 집합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며[27] 또 그 집합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몰몬경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집합도 없을 것입니다.[28]

몰몬경에는 충만한 복음이 실려 있습니다. 몰몬경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해 조금밖에 알지 못할 것입니다.[29] 몰몬경에는 속죄에 관한 가르침이 담겨 있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며, 구원과 승영의 의식을 받을 자격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책은 영생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해 주는 성전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이곳 지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 그런 하늘의 시각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선교 사업이 이스라엘의 집합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의 선교사들은 여러 나라에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찾고 있습니다.

의로운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시온은 어디에든 존재합니다.[30] 거의 모든 교회 회원은 사는 곳이 어디이든, 출판과 통신의 발전으로, 또 집회를 통해 교리와 열쇠, 의식 및 복음의 축복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성도들은 편의에 따라 143곳의 성전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31]

성도들은 어디에 살든, 주님의 축복을 똑같이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안전은 언제나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지, *어디에* 사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집합은 궁극적인 종착지가 *아니며*,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견디어 얻어 내야 하는 것에는 성전에서 받는 엔다우먼트와 인봉 의식이 포함되며, 혈통 또는 입양으로 하나님과 성약 관계를 맺고, 그런 후 그분과 더불어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녀들이 영생에 이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32]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강압이 아니라 각각의 선택과 개인적인 준비를 통해 그분께 돌아오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보시는 시각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시각이 될 수 있습니다. ■

2013년 6월 26일,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열린 신임 선교부 회장 세미나 중 전한 말씀에서

주

1. 창세기 13:16; 22:17; 아브라함서 3:14 참조.
2. 창세기 12:1, 7; 아브라함서 2:6 참조.
3. 아브라함서 2:9, 11 참조.
4. 갈라디아서 3:26~29; 아브라함서 2:10 참조.
5. 창세기 49:10, 24 참조.
6. 이사야 11:12; 22:16~18; 제3니파이 15:20~22; 아브라함서 2:10~11 참조.
7. 니파이전서 15:18 참조; 또한 몰몬경 표제지 참조.
8. 교리와 성약 133:8~17 참조.
9. 창세기 12:2~3; 26:3~4; 35:11~12 참조; 또한 제3니파이 21장 및 29장 서문 참조.
10. 또한 옴나이서 1:26; 모로나이서 10:30, 32; 교리와 성약 20:59 참조.
11. 교리와 성약 137:5~8 참조.
12. 고린도전서 15:29; 베드로전서 4:6 참조.
13. 바울은 또한 우리 시대에 관해 이렇게 예언했다. "[주님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에베소서 1:10)
14. 창세기 35:23~26; 41:50~52 참조. 레위 지파는 백성 사이에 제사들을 보냈으며, 지파로 인정되지도, 지파에게 주어지는 기업을 받지도 않았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기업의 땅을 받았으며, 그들의 부친 대신 지파로 인정되었다. 그렇게 열두 지파의 수가 유지되었다.
15. 이더서 13:8 참조; 또한 창세기 49:22 참조.
16. 레위기 26:44; 신명기 4:27~31; 28; 29; 30:1~10; 느헤미야 1:9; 이사야 11:11~12; 예레미야 31:7~12; 에스겔 37:21~22; 아모스 9:14~15; 마태복음 24:31; 야곱서 6:2 참조. 또한 러셀 엠 넬슨, "반복된 출애굽", *리아호나*, 2002년 4월호, 30~38쪽 참조.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한 예언은 특히 이사야 49~51장 및 야곱서 5장에 나와 있다.
17. 마태복음 24:14; 교리와 성약 133:17 참조.
18. 교리와 성약 17:6 참조.
19. 몰몬서 7:10; 9:37; 모로나이서 10:31~34 참조.
20. 이사야 40:5 참조.
21. 성약은 입양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마태복음 3:9; 누가복음 3:8; 갈라디아서 4:5~7)
22. 교리와 성약 124:58; 132:31~32 참조.
23. 교리와 성약 84:33~40; 132:19; 아브라함서 2:11 참조.
24. 역대상 5:1 참조.
25. 에브라임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도록 이끌 장자권이 주어졌다.(예레미야 31:7~9; 교리와 성약 64:36; 133:32~34 참조)
26. 교리와 성약 110:13~16 참조; 또한 말라기 4:5~6 참조.
27. 이스라엘의 집의 흩어짐과 집합에 관련된 교리는 몰몬경 맨 앞에 나오는 가르침 중 하나이다.(니파이전서 10:14 참조)
28. Bruce R. McConkie, *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 554 참조.
29. 흠정역 신약전서에는 *속죄*라는 낱말이 어떤 형태이든 단 한 차례만 나오지만,(로마서 5:11 참조) 몰몬경에는 24개 구절에 나온다.
30. 교리와 성약 97:21 참조.
31. 2014년 5월 현재
32. 모세서 1:39 참조

암몬처럼 되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몰몬경에 나오는 이 영웅에게서 선교 사업과 활동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암몬은 몰몬경에 나오는 영웅적인 인물로, 레이맨인 왕인 라모나이의 양 떼를 지켜낸 것을 포함하여 용감한 봉사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앨마서 17:25~39; 18:1~10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다른 경전상의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암몬의 이야기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의미 있는 선교 사업

미국 뉴저지 밀빌의 수잔 이 타라세비치는 남편 아돌프와 함께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암몬의 이야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배웠다.

수잔은 이렇게 말한다. "저희 부부의 선교사 부름장이 든 커다란 흰 봉투를 우편함에서 발견했을 때, 남편과 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부름에 대해 금식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봉사할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부름을 의미 있게 수행할 능력을 얻게 되리라는 확증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아이들과 손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봉투를 열고 폴란드 바르샤바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부름장을 읽으면서, 그 일이 참으로 우리의 임무라고 말해 주는 듯한 평온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선교부에 도착한 후에 타라세비치 자매는 자신이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남편은 곧바로 지도자로서 임무를 받아서 도전적이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둘 다 폴란드어를 못했지만, 남편의 임무는 언어의 장벽도 초월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자주 제가 쓸모없고 고립되었다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선교 사업에 들이는 저의 노력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들

타라세비치 자매는 몰몬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교사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오랫동안 초등회 교사로 봉사하면서, 저는 자주 우리에게 영감과 자극을 주는 앨마와 모사이야 아들들의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면서 선교 사업에 대해 가르쳤었습니다. 선교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강인하고 강력한 암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선교부의 젊고 힘 있는 선교사들을 이 시대의 모사이야 아들들로 그려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백발인 할머니가 그러한 역할을 염원하는 것이 어쩌면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녀는 부드럽게 묻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삽화: 랜 딘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길을 잃는 것이 어떤 느낌이고,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하나를 찾는 '영적인' 목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숙고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한 목자들은 구조대의 전문성과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지만, 목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곳으로 와, 구조대 바로 옆에서 등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영혼들을 내게 데려오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12쪽.

"암몬의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종이 되어 양 떼를 돌보고, 흩어진 양들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암몬이 되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타라세비치 자매는 한 가지를 통찰하게 되었다. "그렇게 저는 제 임무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에 필요한 언어 기술은 숙달하지 못했지만, 저는 제가 오랫동안 상호부조회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 다른 봉사, 즉 우리에게서 멀어져 잊힌 사람들을 찾아내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선교 임무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원리 안에는 저의 부족한 언어 능력을 극복할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양 떼를 돌보고 흩어진 양들을 모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의 일을 이렇게 말했다. "장년 선교사 생활은 배움과 봉사로 가득한 멋진 기간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고 풍성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암몬의 찬송이라고 직접 제목을 붙인 다음 성구를 노래로 부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다. "보라, 나의 기쁨이 충만하고, 참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으니, 내가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앨마서 26:11)

양을 구하라

미국 유타 사우스웨버에 사는 페기 윌리스 폴은 스테이크 신권 및 보조 조직 역원 훈련 모임에서 구조와 재활동화에 관해 가르치도록 지명받았을 때 암몬으로부터 통찰을 얻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은 암몬의 모범을 따르는 훌륭한 방법이다.

"이미 친숙한 암몬의 이야기를 읽는데 무언가 새로운 것이 보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암몬은 레이맨인 가운데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왕의 양 떼를 돌보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간 다른 종들이 있었습니다. 물을 먹이기 위해 시부스로 양 떼를 몰아가는데, 도적들이 양 떼를 흩어 버렸습니다. 이 일로 다른 종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양 떼가 흩어지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이제 그들도 그런 운명을 맞게 되리라 확신했던 것입니다."(앨마서 17:25~30 참조)

폴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암몬은 기회를 찾았습니다. 암몬은 계획이 있으니 기운을 내라며 다른 종들을 다독였습니다. 앨마서 17장 31~33절을 읽으면 다음과 같은 요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 양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아차린다.
2. '몹시 빠르게 앞으로 내달[린다.] '
3. 양 떼를 함께 모은다.
4. 양 떼를 안전하게 우리로 데려온다.
5. 양 떼 주위를 둘러싸며, 안전하게 지키고, 사랑으로 양육한다."

폴 자매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재활동화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고 나서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암몬의 이야기는 흩어진 회원들을 구조하는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도적들처럼 회원들을 복음의 선한 말씀으로부터 몰아내려는 영향력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영혼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는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의 다음 말씀을 인용한다. "저는 …… 우리 각자가 도움이 필요하고 또 절망적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사랑의 정신으로 그들을 들어 올려 교회의 품 안에 안기게 하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라며, 또 간구합니다. 그곳에서 강한 팔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며 위로하고 지지하여 행복하고 건설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길 바랍니다."[1] ■

주

1. 고든 비 힝클리, "구조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리아호나*, 1997년 1월호, 86쪽.

우리는 앰율레크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

앰율레크는 몰몬경에 나오는 또 다른 위대한 영웅이다. 그는 의의 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부와 명성을 지닌 앰율레크는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과 권능을 보았으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 번 부름을 받았으나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내가 알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앨마서 10:6; 또한 4~5절 참조)

그러나 주님은 천사를 보내 앰율레크에게 선지자인 앨마를 집으로 맞아들이라고 이르셨다. 앰율레크는 앨마에게 음식을 주었고, 앨마는 앰율레크와 그의 집안에 속하는 모든 친족을 축복하고 가르쳤다. 그런 후 앰율레크는 앨마를 따라 성역에 나섰으며, 복음 진리에 대한 힘 있는 두 번째 증인이 되었다. (앨마서 10:7~12 참조)

앰율레크는 앨마의 동반자가 되어 백성들에게 회개를 부르짖었다. 그가 복음을 그토록 강한 권능과 권세로 가르치자, 백성들은 놀라워했다.(앨마서 11:46 참조) 그러다가 결박되어 감옥에 갇힌 앨마와 앰율레크는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사이돔에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가르쳤다.(앨마서 14, 15, 31장 참조)

앰율레크처럼 오늘날의 교회에도 다시 활동화되어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자신이 강력한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청년 성인의 부모를 위한 열 가지 조언

웬디 울리히
임상심리사

우리 아이들을 대학 기숙사나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시켰을 때, 남편과 나는 그 아이와 우리 부부가 드디어 "다 해냈다"는 생각에 시원섭섭해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가 새로운 역량과 자유를 얻음에 따라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우리가 자녀의 생활을 통제할 길은 사실상 사라진 반면에, 그 아이가 도움, 즉 전과는 다른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실제로 커졌다.

오늘날의 어려움

다음은 오늘날 청년 성인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더불어 그런 어려움으로 부모에게 생기는 질문을 모은 것이다.

더 길어진 독신 생활. 인생에서 늦게 가정을 꾸리는 사회적인 풍조 탓에 어떤 청년 성인들은 청춘이 평생 지속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아니면, 언제 결혼하여 자녀를 가질 수 있을지 의아해하며 압박감을 느낀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영원한 시각을 지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재정적인 불안정. 오늘날 많은 청년 성인들은 부모만큼의 경제적인 안정을 얻지는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학사 학위가 있더라도 직장을 얻거나 가족을 부양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부모로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자녀가 스스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아내리라고 여겨야 하는가?

압도적으로 많은 선택의 기회. 오늘날의 청년 성인들은 더욱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런 모든 선택이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부모는 어떻게 성인 자녀가 여러 진로를 탐색하면서 만족할 만한 직업을 정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오늘날의 세상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는 올바른 지원과 인도로 청년 성인 자녀들을 계속 도울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생활함. 기혼이든 미혼이든, 부모와 함께 사는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성인 수는 늘어만 간다.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는 누가 식비를 내고 또 손자 손녀는 누가 훈육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종교 활동. 오늘날, 어떤 종교에서든 청년 성인들은 불과 한 세대 전보다 종교적인 활동을 덜 하는 것 같다. 우리는 부모로서 성인 자녀가 교회에서 활동을 유지하도록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또 그들이 교회 활동에서 멀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영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

부모에게 주는 지침

비록 우리의 성인 자녀가 일부 능력이나 성취 면에서 우리를 능가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전히 부모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또 그들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음은 고려해 볼 만한 10가지 지침이다.

1. 자녀가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를 알아본다. *여러분*이 성인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대신, 그들의 가치관과 목표, 꿈을 물어본다. 그들은 그것들을 이룰 길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대화의 초점을 *그들의* 꿈에 맞춘다. 장단점을 찾아보고, 인도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며, 대화를 계속한다. 만일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하면 직업 상담사를 만나게 하든지, 적성 검사를 받게 하거나, 일과 자원 봉사를 통해 더 많은 경험을 쌓도록 권한다.

2. 교리와 성약 121편 34~46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한다. 이 성구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훌륭하게 적용되며, 성인 자녀를 의롭게 인도하는 방법에 관한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준다.

3. 여러 청년 성인과 돈독한 관계를 맺는다. 다른 사람들의 자녀 역시 여러분이 어떻게 20대와 30대를 보냈는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청년 성인들은 어른들이 우선시해야 할 주요 사안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고, 직업을 선택했는지, 또는 언제 배우자를 찾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런 청년 성인들과 지내다 보면 이들 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4. 자신의 은사를 알게 한다. 청년 성인들이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를 발견하게 하면, 만족할 만한 미래를 마음에 그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능숙해질 때까지는 그 일을 즐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해 준다. 선천적으로 많은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공하려면 그것을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들여야 한다.

5. 그들의 결정을 신뢰한다. 그들이 언제나 완전한 선택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은 그들이 잘못을 범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실패를 극복하고 시련을 견뎌야 할 때가 있더라도 인생은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다. 어린 *아이*들은 트라우마로 두려워할 수 있겠으나 청년 *성인*들은 장애를 피하기보다 이를 극복할 때 성장한다. 따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압박감으로부터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권하며,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느 정도 유머를 보인다.

6. 그들이 기울인 노력을 칭찬한다. 청년 성인이 기울인 부지런한 노력과 잘못에서 신속하게 회복한 것을 칭찬하면, 일을 오래 계속하고 더 많은 도전을 받아들이며,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더 많이 찾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런 좌우명을 들려주신 적이 있다. "일을 하면 성공하나 가만히 앉아 바라고만 있으면 성공은 없다."[1]

7. 영감을 구한다. 기도와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마음을 열어 준다. 지인 중에 한 여성은 성인 자녀가 손자들에게 보여 주는 텔레비전 쇼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손자의 나이가 아무리 시청 연령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녀가 보기에 그 쇼는 불손과 다툼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을 뿐이었다. 참견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그녀는 어떻게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거듭 기도하고 금식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말을 걸며, 자식들 사이의 불손과 다툼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조언을 구해 왔다. 나의 친구는 텔레비전 쇼에 관한 의견, 즉 며느리가 인식하지 못한 영향력에 대해 알려 주었다. 그 젊은 부부는 그 문제를 자녀와 상의했다. 그들이 고쳐야 할 점에 동의하자 집안 분위기는 나아졌다.

8. 돈에 관해 이야기한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와 각 자녀의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줄 수 있다면 어떤 재정적 지원을 자녀에게 주겠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한다. 어쩌면 여러분의 도움은 예산 계획을 할 때에만 필요할지도 모른다. 재정 지원을 할 때에는 돈을 돌려받거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둔다. 그런 후 돈을 관리할 책임과 아울러 미리 다 써 버리면 나중에는 없이 지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잘못 사용하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기분 나쁘지 않게 알려 준다.

9. 겸손해진다. 잘못된 양육에 따른 자괴감이 느껴지면, 창피해하기보다는 더욱 겸손해지도록 노력한다.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알리며 잘못을 솔직히 사과한 다음, 자신 있게 나아간다. 자녀가 여러분을 지켜봄으로써 잘못은 고칠 수 있고, 사과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며, 타인과 자신을 용서하면 화평이 온다는 점을 알게 해 준다.

10. 진정한 성공을 측정한다. 남들이 자기 자녀의 선택을(좋든 나쁘든 간에) 어떻게 생각할지를 지나치게 신경 쓰면 목표를 상실하게 되고, 또 어떨 때에는 영을 잃기도 한다. 부모로서 우리의 성공은 자녀가 우리 가치관에 따라 얼마나 잘 생활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 얼마나 변함없이, 또 이타적으로 생활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한다.

각 청년 성인 자녀의 필요 사항과 개성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하면, 영은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인도할 수 있고,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지원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청년 성인 자녀는 우리와 주님이 그들 편에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주

1. Thomas S. Monson, "Great Expectations" (Church Educational System fireside for young adults, Jan. 11, 2009), 6; speeches.byu.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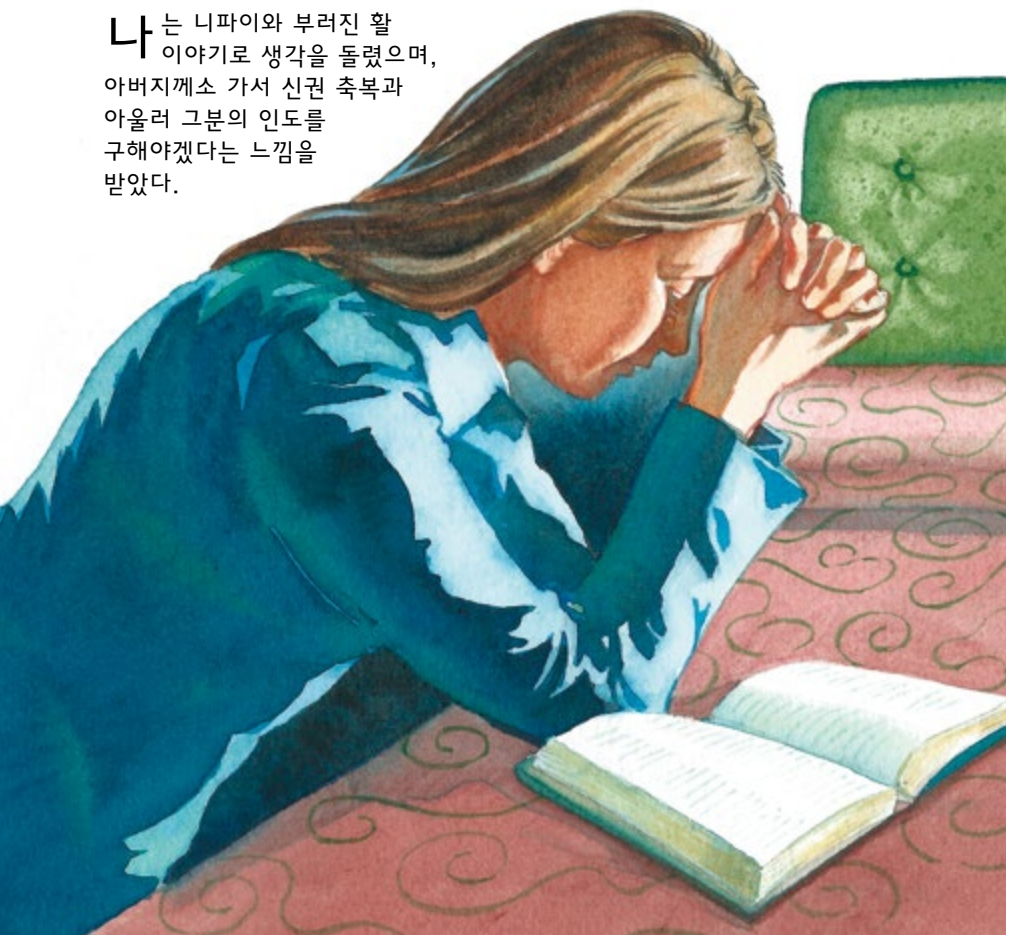
니파이가 나에게 답을 알려 주었다

나는 회원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우리 가족은 교회에 가끔씩 참석하는 편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늘 혼자라도 교회에 가려 했다. 1970년대 초, 미국 캔자스 피츠버그에서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할 때였다. 몰몬경을 공부하던 때였는데, 나는 모두에게 함께 몰몬경 전체를 다 읽어 보자는 제안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몰몬경을 읽으면서 나는 이 책이 참되다는 강한 간증을 얻었다.

몇 년 후, 부모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우리 집에 계시면서 아버지는 서로 의견이 달라 내가 논의하고 싶지 않은 어떤 주제를 들고 나오셨다. 아버지는 내가 거의 흥분할 때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으셨다. 나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침실로 가서 아버지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다. 그 응답으로 니파이와 부러진 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다.

니파이전서 16장에 있는 이야기로 생각을 돌리자, 주님께 불평했던 아버지에게로 가서 양식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볼 만큼 겸손했던 니파이에게 생각이 미쳤다.(23절 참조) 그 생각을 하니, 나도 아버지께로 가서 신권 축복과 아울러 그분의 조언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거실로 돌아가 축복을 청하자 아버지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좀 생각할 시간을 다오."



나는 니파이와 부러진 활 이야기로 생각을 돌렸으며, 아버지께소 가서 신권 축복과 아울러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동안 아빠는 금식하고 기도하셨고, 엄마와 함께 돌아가시기 전에 멋진 축복을 주셨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빠는 생활을 바꾸시기 시작했다. 캔자스에서 집으로 돌아가시던 중에 부모님은 미국 미주리 주에 있는 아담-온다이-아만을 방문하셨는데, 그곳에서 아버지는 강한 영적 경험을 하셨다.

오래지 않아 부모님은 활동적이고 결의에 찬 후기 성도가 되셨다. 그 후 몇 년에 걸쳐 부모님은 한 번은 독일에서, 또 한 번은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에서 선교 사업을 하셨다. 1987년에 세상을 떠나실 당시 아버지의 부름은 스테이크 축복사였다.

주님은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임을 아셨다. 나는 몰몬경을 통해 응답을 받았고, 또한 그 속삭임대로 실행한 나의 행동을 통해 아버지는 자신이 우리 가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이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나는 몰몬경이 참으로 우리 시대를 위해 쓰인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임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낙담할 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필요한 답은 몰몬경에 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니파이후서 32:3) ■

주디 엠 스미스, 미국 캔자스

삽화: 브래들리 클락

엄마가 보낸 두 통의 편지

1996년, 우리 부부에게는 4살과 7살배기 아들 둘이 있었다. 우리는 전형적인, 젊고 바쁘게 생활하는 가족이었다. 어느 늦은 밤, 아내는 시간을 내어 당시 핀란드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던 조카 데이비드에게 편지를 썼다.

아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장문의 편지를 써야 한다고 느꼈다. 아내는 각 식구가 하고 있는 일과 그들의 영적 상태, 나와 아내의 교회 부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내의 개종 이야기와 선교 사업에 대한 느낌 및 복음에 대한 간증으로 편지를 가득 채웠다.

대단한 편지이긴 했으나 나는 과연 조카에게 그토록 많은 내용이 필요한지 의구심이 들었다. 나중에 아내는 조카에게 편지를 또 한 통 보내기도 했다.

6년 후, 나는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고, 또 우리 아이들은 10살과 13살이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온 세상이 뒤집혔다. 2002년 1월 2일, 불과 42살의 나이에 아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 후 나는 집에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1]에 나오는 원리를 따르려고 힘썼다. 자녀를 통솔하고 부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아들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지는 못하고 있음을 나는 알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계속 살아 나갔다.

2012년 6월, 콜로라도 덴버 남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작은 아들 샘이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번 주에 정말 멋진 일이 있었어요," 아들은 이렇게 썼다. "엄마한테서 편지를 두 통이나 받았어요."

아들은 사촌 형인 데이비드에게서 소포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데이비드가 핀란드에 있을 때 아내가 보내 준 편지도 들어 있었다고 했다.

"데이비드 형은 엄마가 보낸 이 두 편지는 사실 선교 사업을 나온 저에게 쓴 것이었다고 말했어요." 이어서 샘은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서 데이비드 형은 그 편지들을 저한테 보냈는데, 정말 놀라운 편지였어요!"

샘은 어머니의 개종과 간증, 선교 사업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어 "지금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며, 편지를 복사하고 원본은 집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아빠가 장로 정원회 회장이나 와드 선교 책임자로 봉사한 적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어요." 샘은 또한 자기가 4살 때 "기도를 마치면 침대에서 펄쩍 뛰며 '난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하고 소리치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썼다.

그런 다음, 샘은 엄마에 관해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덧붙였다. "[편지에서] 제가 프로 레슬링 선수에게 푹 빠져 있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엄마는 분명 제가 레슬링을 하려 한다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

나는 편지에 대한 샘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져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몇 주 후에 샘은 편지를 집으로 우송했다. 그 편지들은 1996년에 쓰인 당시에도 당연히 그러했겠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 더욱더 힘 있고, 친밀하며, 감동적인 힘을 자아내었다.

아내의 편지는 조카에게 힘이 되었지만, 마치 "물 위에 [던져진 떡]"(전도서 11:1 참조)처럼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선교사인 아들과 홀아비가 된 남편을 축복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 ■

켄 피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그 편지들은 1996년에 쓰인 당시에도 당연히 그러했겠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 더욱더 힘 있고, 친밀하며, 감동적인 힘을 자아내었다.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네 엄마의 얼굴을 보았단다

2002년 여름 어느 일요일에 나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 잠에서 깼다. 그때 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퍼시픽팰리세이즈에 있는 고향 와드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거의 50년 동안 그 와드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

나는 주님께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지 말씀드리고 그날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 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날 오후에 나는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있는 스테이크 건물에서 일리노이 나부 성전 재헌납 방송 모임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안타깝게도, 나는 너무 늦게 도착하여 헌납 모임에 입장하지 못했다. 나는 차로 돌아와 다시 고속도로로 향했는데,

운전하는 동안 "랜디, 가서 메리를 살펴보아라!"라는 음성을 들었다. 메리 아주머니는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이자 다른 교회의 열성적인 신도로, 딸 나타샤와 함께 25년이 넘도록 루비 이모의 옆집에 살고 있었다. 이 모녀는 근처에 친척이 없었기에 우리와 가족처럼 지냈다. 1984년에 이모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종종 메리 아주머니의 집에 들렀는데, 방문할 때마다 작은 선물이나 직접 만든 음식을 들고 가셨다.

처음에 나는 그 속삭임을 무시했다. 무턱대고 찾아갈 수는 없었을 뿐더러 전화를 드릴 휴대폰도 없었다. 갑자기 그 음성이 다시 들렸는데, 이번에는 더 큰 소리였다. "랜디, 가서 메리를 살펴보아라!" 고속도로를 빠져나오기에는 시간이 빠듯했지만, 이번에는 그 권고를 따랐다.

메리 아주머니 집에 갔을 때, 아주머니는 나를 반기면서도 어딘가 아파 보이셨다. 아주머니가 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여쭈자, 아주머니는 상당히 많이 아팠고, 목이 다쳐서 고통스러웠다고 대답하셨다. 먹을 것도 거의 없었는데, 너무 아파서 약국이나 시장에도 갈 수 없었다고 했다.

우리 가족에게 왜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리자 아주머니는 "난 하나님 아버지께 누군가를 보내어 날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단다."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고 나를 보내셨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았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다. "네가 문간에 들어섰을 때, 네 얼굴이 아닌 네 엄마의 얼굴이 보였단다."

곧바로 나는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영이 가까이에 있음을 느꼈으며,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아주머니를 돌보아 주라는 느낌을 받았다. 돌이켜 보면, 어머니의 일생은 남을 섬기는 일로 가득하다.

나는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과 남을 섬기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모범을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싶다. ■

랜디 레이놀즈, 미국 캘리포니아

메리 아주머니 집에 갔을 때, 아주머니는 나를 반기면서도 어딘가 아파 보이셨다. 나는 아주머니가 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희 부부를 구해 주셨어요

나는 1979년부터 1986년까지 오만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국방성 관련 사업을 했다. 국방성은 그 나라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공사를 내게 맡겼고, 나는 그 공사를 관할하는 유일한 관리자로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일했다. 나는 또한 국방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는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다.

어느 날, 회사 본사에서 어느 전기 기술자와 마주쳤는데, 그는 과거에 그랬듯이 우리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 나는 다른 공사 일로 떠나기 전에 보통 본사에 잠시 머무를 뿐이었기에 그의 말에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은 오만과 예맨 국경을 따라 시행된 프로젝트의 전기 공사를 점검하는 담당자가 되었다. 그는 본사로 돌아가기 전에 나와 한 시간가량을 함께 보내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그는 도착해서 공사장을 조사한 후 모든 것에 만족해했다. 나는 그와 있으면서 업무에 집중된 대화를 했으며, 그런 후 그를 가설 활주로로 태우고 가서 배웅해 주려 했다.

때는 마침 장마철이었는데, 그날 인도양 위 1,830미터 고원에 위치한 활주로가 구름으로 뒤덮이고 말았다. 내 동료가 탈 비행기는 연착되었다.

자동차 안에서 그와 함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니, 그에게 가족, 특히 부인에 관해 물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게 하자 그 기술자는 최근에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아내에게서 들었다며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곧바로 사랑이라는 낱말이 마음속에 떠올랐고, 우리는 두 시간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품어야 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품고 계신 사랑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미처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대화를 끝내자 구름이 걷히고 그 기술자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얼마 후 나는 그가 회사를 사직하고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다.

몇 년 후, 영국 남쪽 해안에 있는 도시인 플리머스에서 아론 신권 청남들과 야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내게로 와서 "당신이라고 생각했죠, 닐." 하고 말했다.

그는 바로 오만에서 온 그 전기 기술자였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다. "그날 산에서 사랑에 관해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저희 부부를 구해 주셨어요. 언제까지나 감사드릴 겁니다."

우리는 몇 마디 말을 더 나누었으며, 그는 떠났다. 그 후로는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나는 오만에서 받은 영감에 대해 언제까지나 감사할 것이다. 그 영감은 그 기술자에게 축복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집을 떠나 홀로 있는 나에게도 교회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힘이 되었다. ■

닐 에스 로이, 영국 요크셔

자동차 안에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사람과 함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게릿 더블유 공
장로
칠십인 정원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는 어린이들과 함께 "주 사랑 느껴요 값없이 주신 사랑"[1]을 노래합니다.

그분이 값없이 주신 속죄의 사랑은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젖과 꿀"(니파이후서 26:25)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한(앨마서 34:10 참조) 속죄를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모로나이서 10:32)는 권유를 받습니다.

구주께서 값없이 주신 속죄의 사랑을 이해하면, 온전함에 대해 스스로 만든, 부정확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두려움, 즉 잘못을 저지른다는 두려움, 별로 훌륭하지 않다는 두려움, 남들에 비해 실패한 사람이라는 두려움,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에 일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두려움을 떨쳐 낼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 값없이 주신 속죄의 사랑을 이해하면, 온전함에 대해 스스로 만든, 부정확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값없이 주신 속죄의 사랑을 통해 더욱 용서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덜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구주께서 하셨듯이 사랑하고 이해하며 섬길 기회들을 줍니다.

속죄를 이루게 한 그분의 사랑은 온전함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부지런히 계명을 지키며 계속 신앙을 지닐 수 있습니다.(모사이야서 4:6 참조)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에 의지함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니파이후서 2:8 참조)

더 넓은 관점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영과 몸의 영원한 여정, 즉 우리 영혼의 영원한 여정 안에서 실질적으로 온전해집니다.(교리와 성약 88:15 참조) 온전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 적절하고도 완전한 구조로"(앨마서 40:23) 회복될 때 얻게 되는, 육신의 삶과 죽음, 부활에 걸친 여정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마음과 의향에 "큰 변화"(모사이야서 5:2)를 가져오는 영적인 탄생 과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것은 구주의 계명과 우리가 맺은 성약에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평생에 걸친 개선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전해짐으로써 우리는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완전한 연합 관계를 인정받습니다.(교리와 성약 128:18)

그런데 *온전함*이라는 낱말이 잘못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해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는 온전해지기 위해 아마도 그런 식으로

세상의 빛, 하워드 라이언, 복사 금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온전함은 언제나 불가능하게만 보이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더라도 걱정하게 되고, 낙심하거나 지치게 됩니다. 주위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잘못 때문에 조마조마해합니다. 사실, 열심히 노력할수록 우리가 구하는 온전함은 더욱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교리를, 그리고 구주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자비를 더 폭넓게 이해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속죄에 관한 교리를 적용함으로써 선교사, 학생, 청년 독신 성인, 아버지, 어머니, 미혼 세대주, 그리고 온전함을 구하거나 온전해지는 것과 관련하여 압박감을 느낄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분 자신과 다른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은 오직 우리 구주뿐이시지만, 그분도 지상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우리 구주의 속죄 덕분에(모사이야서 4:6~7 참조) 우리는 경험과 선택을 통해 배우고 회개하며 성장합니다.

이 지상의 시험 기간 중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말씀에 말씀을"(교리와 성약 98:12) 더하는 방식의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마음의 "큰 변화"(앨마서 5:12, 13; 모사이야서 5:2)를 겪는 영적 체험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귀에 익은 "끝까지 견딘다"라는 말은 영원한 성장에 시간과 과정이 자주 관여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몰몬경의 마지막 장에서 위대한 선지자 모로나이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여 "그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성약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며 흠 없게"(모로나이서 10:32, 33) 될 수 있습니다.

"공의를 이기고,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는 자비"를 가져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주의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앨마서 34:14, 15)입니다. 참으로 "회개에 이르는 신앙"은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크고도 영원한 구속의 계획"(앨마서 34:16)을 축복으로 누리는 데 필수입니다.

구주의 속죄를 철저하게 받아들이면, 신앙이 커지고, 또한 어떻게든 온전해지거나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무리한 기대감을 떨쳐 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절대적인 완벽, 그리고 절망적인 결함 둘 중 하나로

판단하는 것은 흑백논리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진보하고 있는 창조물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그분의 가장 위대한 작품(시편 8:3~6; 히브리서 2:7 참조)이라는 것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 값없이 주신 속죄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이 무자비하고 흠을 잡아 내는 심판자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7)는 말씀에 안도감을 느끼며, 성장을 위해서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모세서 7:21 참조)

우리의 완전한 모범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은 오직 우리 구주뿐이시지만, 그분도 지상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계속하여 은혜에 은혜를 받으시더니, 드디어는 충만함을 받으[셨으며,]"(교리와 성약 93:13)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앨마서 7:12) 지상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유혹이나 죄, 또는 일상의 압력에 굴복하지는 않으셨지만, 지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시련과 역경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22:8 참조)

구주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고 명하셨습니다. 희랍어로 *온전한*이라는 말은 "완성된, 완벽한, 충분히 발전된"(영문 마태복음 5:48, 주석 b)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가 완성되고, 완벽해지며, 충분히 발전하여,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 주신 덕성과 성품 안에서 온전해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2]

속죄의 교리를 적용할 때, 완벽해지고자 하거나 완벽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완벽주의

온전해진다는 것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완벽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완벽주의란 훌륭해져야 한다는 바람직한 소망으로 지금 당장 완벽해져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에 사로잡히는 태도나 행위를 말합니다. 때로 완벽주의는 온전한 사람만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든가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완벽주의는 불면증, 초조감, 미루기, 낙담, 자기 합리화,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화평과 기쁨, 확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해지려 하는 선교사들은 선교 임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거나, 침례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거나, 선교부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임무를 속히 받지 못하면 근심하거나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성취가 몸에 밴 유능한 젊은이에게 선교 사업은 인생에서 처음 겪는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온전하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성신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충실한 교회 회원이 되도록"[3] 돕겠다는 결심을 기준으로 자신의 성공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3]

학업을 위해 집을 떠나 새 학년을 시작하는 대학생은 흥분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장학생, 운동선수, 음악가 등 '작은 못에서 놀던 큰 물고기'는 낯선 바닷물과 예측할 수 없는 급류가 흐르는 대양에 떨어진 작은 물고기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학생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매사에서 첫째가 되지 못하면 실패감을 느낄 것입니다.

학생들은 인생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고려하여, 때로는 할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며, 최고가 되는 것이 늘 가능한 것은 아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정에서 완벽에 대한 기대감을 품기도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지금 당장 완벽한 배우자, 부모, 주부, 가장, 또는 후기 성도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분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요? 열린 마음으로, 힘이 되는 질문을 포함한 대화로 그들이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사실은 잘 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경쟁적인 비교를 하지 않으며, 그 대신 진심 어린 격려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의 또 다른 심각한 측면은 비현실적이고, 비판적이거나 잘못을 용인하지 않는, 우리의 기준에 맞추라고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와 타인의 삶에서 구주의 속죄 축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예컨대, 청년 독신 성인은 잠재적인 배우자의 바람직한 자질 목록을 만들어 완벽한 동반자를 얻으려는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자매는 멋지고 합당한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춤을 잘 못 춘다든지, 부자가 되려는 계획이 없거나 선교 사업을 하지 않았다 해서, 또는 지금은 해결했어도 과거에 외설물 문제가 있었기에, 자신의 완벽주의 잣대에 미달하는 그와는 데이트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형제는 멋지고 합당한 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그녀가 스포츠팬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독신 성인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이 아니고, 미인대회 여왕도 아니며, 예산에 익숙한 살림꾼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지금은 해결했어도 과거에 지혜의 말씀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만든 비현실적인 인물상에 부합되지 않는 그녀와는 데이트를 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물론 자기가 바라는 자기 자신과 잠재적인 배우자의 자질을 깊이 생각해야 하며, 가장 높은 소망과 표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다면, 예기치 못한 장점에 놀라워하고 우리처럼 온전하지 않은 누군가와 더 친해질 기회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회개와 속죄 권능을 통해 연약함은 강해질 수 있고 회개한 죄는 참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은 완전한 두 사람이 결혼 서약을 한 결과가 아닙니다. 도리어 헌신과 사랑은 불완전한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 동안 서로 강화하고 축복하며 격려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커집니다. 언젠가 현대의 한 선지자의 부인은 선지자와 결혼한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선지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다만 어떤 부름을 받더라도 교회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4] 달리 말씀드리자면, 남편과 아내는 세월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부부로서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배우자, 완전한 교육, 완전한 직장, 또는 완전한 집을 기다리는 것은 아득하고 외로울 뿐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영을 따르며, 완벽주의적인 요구로 생기는 의심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도록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성적으로 어떤 짐을 지고 있거나 걱정을 안고 사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진지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온전함과 성공을 구주의 속죄의 사랑에 관한 교리로 정의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표준으로 정의하는가? 나는 성공이나 실패를 성신이 내 의로운 소망을 확인해 주는 바에 따라 측정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표준으로 측정하는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쳤다고 느끼는 분들은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고 휴식하며, 음식을 먹고 긴장을 풀 시간을 내십시오. 바쁘다는 말은 합당하다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니며, 합당해지는 데에 완벽함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5]

자신의 연약함이나 약점을 찾는 경향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잘하는 일이 크든 작든,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는 분과 꾸물대는 분들은 때로 지나친 준비 탓에 그럴 수도 있는데, 큰 성장을 가져다줄 일에 도전하는 기회를 회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십시오!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적 권고나 유능한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체계화할 길을 모색하고, 패배주의적인 행동을 줄이며, 더 많이 감사를 체험하고 표현하십시오.[6]

인내심이 없으면 신앙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신앙과 인내는 선교사들이 새로운 언어나 문화를 터득하고, 학생들이 새로운 과목에 숙달되며, 청년 독신 성인들이 모든 것이 완전하기를

자신의 연약함이나 약점을 찾는 경향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잘하는 일이 크든 작든,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기다리기보다는 관계를 쌓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신앙과 인내는 성전 인봉 승인이나 신권 축복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행함을 받는 대신 행하는 사람이 된다면(니파이후서 2:14 참조), 덕성이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인생에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반대가 되는 것", "혼합되어 하나가"(니파이후서 2:11) 되는 것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고(모사이야서 4:27) 참조) 게으르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8:124 참조)

우리는 또한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면서도]"(교리와 성약 58:27) "가만히 있어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자]"(시편 46:10; 또한 교리와 성약 101:16 참조) 주기적으로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음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10:39; 16:25 참조)

우리는 영적, 신체적으로 기운을 새롭게 할 적절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선을 행함에 지치지 [않을]"(교리와 성약 64:33; 또한 갈라디아서 6:9 참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망스럽지 않으면서도 쾌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웃지 않고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신 구주께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분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모로나이서 10:32)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구주께서는 지금 온전함을 구하거나 온전해지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께 값없이 주시는 속죄의 사랑으로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8, 30)[7] ■

주

1. "주 사랑 느껴요",(*어린이 노래책*, 42쪽)
2. 또한 러셀 엠 넬슨, "언젠가는 실현될 온전함",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86~88쪽 참조.
3.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년), 10쪽.
4. Lavina Fielding, "Camilla Kimball: Lady of Constant Learning," *Ensign*, Oct. 1975, 62 참조.
5. 예를 들어,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네 가지 명칭",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58~61쪽 참조.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또한 이렇게 주의를 준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부심이 해야 할 일의 목록 길이에 달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가장 중요한 것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20쪽)
6. 이런 통찰은 홍콩에 파견된 아시아 지역 정신 건강 상담자인 카를로스 에프 왓킨스 및 알레인 카에 왓킨스 부부가 제공한 것이다. 이 기사의 다른 통찰은 수잔 공, 래리 와이 윌슨 및 린다 윌슨 부부, 랜디 디 펑크 및 안드레아 펑크 부부, 재닛 샤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선교부 선교사들이 제공한 것이다.
7. 또한 Cecil O. Samuelson, "What Does It Mean to Be Perfect?" 참조. *New Era*, Jan. 2006, 10–13; Janet S. Scharman, "Seeking Perfection without Being a Perfectionist," Virtue and the Abundant Life: BYU Religious Education and Wheatley Institution Symposium에서 전한 말씀, ed. Lloyd D. Newell and others (2012), 280–302.

거룩한 성약으로 기독교인들은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면 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가?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2007년 8월 15일, 페루에 닥친 거대한 지진으로 피스코와 친차에 있는 연안 도시들이 거의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교회의 다른 많은 지도자 및 회원들처럼, 친차 발콘시토 지부의 웬체슬라오 콘드 회장님은 가옥이 파손된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진 발생 나흘 뒤, 칠십인 정원회의 마커스 비 내쉬 장로님은 교회의 구호 노력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친차에 방문하여 콘드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발생한 손실과 피해자 원조에 대한 진척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콘드 회장님의 아내인 파멜라가 그들의 어린 자녀 중 한 명을 안고 다가왔습니다. 내쉬 장로님이 콘드 자매님에게 아이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모두 무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집은 어떠냐는 질문에

그녀는 간단히 "사라졌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살림살이는요?" 하고 그가 묻자,

콘드 자매님은 "모든 것이 집과 함께 파묻혔죠."라고 답했습니다.

내쉬 장로님은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웃고 계시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기도를 드렸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인봉받았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도 있고, 주님도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성약의 힘

그러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힘의 근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근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맺은 성약을 통해서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약이며, 그 협약의 조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1] 이 신성한 협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결의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성결하게 하고 높이 들어 올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이 고난 속에서도 미소 짓게 하고, 역경을 승리로 이끌게 하며,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 많은 의를 이룩"(교리와 성약 58:27)하게 하는 힘을 부여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은사와 축복을 통해 강화됨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원리와 계명에 순종하며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성약을 통해 약속하신 축복들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동적으로 받게 될 자원보다는 능동적으로 행해야 할 자원들을 공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육신을 돌보는 것에 관한 지혜의 말씀에서 주님의 계명은 제일 먼저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교리와 성약 89:19)로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더 나아가, 이 계명은 더 건강한 삶과 파괴적인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로 인도해 줍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에 대한 더 큰 통제력과, 자유로이 움직이고 일하고 창조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물론, 세월과 사고와 질병이 불가피하게 우리를 쇠약하게 만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이러한 어려움을 상대하는 우리의 능력을 증대시켜 줍니다.

성약의 길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은사와 도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으며]"(고린도전서 13:8; 모로나이서 7:46) 사랑은 사랑을 낳고 연민은 연민을 낳고 덕은 덕을 낳으며 결의는 충성심을 낳고 봉사는 기쁨을 낳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성약의 백성의 일원입니다. 니파이가 설명했듯이 "만일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육하시며 그들을 강하게 하[실]"(니파이전서 17:3) 것입니다.

증대된 신앙으로 강화됨

이 사실은 성약이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주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 줍니다. 성약은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모든 일을 감내하며 그 일을 해낼 힘, 곧 신앙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기꺼운 마음도 어느 정도의 신앙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키려 할 때 그 신앙은 증대됩니다. 첫째, 약속된 순종의 열매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키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 성신은 하나님의 기쁨을 전해 주며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과 도움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희망을 품고 침착하게 삶에 맞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별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이노스서 1:6; 이더서 3:12 참조)

이 경륜의 시대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성약의 길을 고수하는 것이 우리가 시련의 시기에 필요로 하는 안도감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고대의 성도들이 모든 역경과 박해를 견뎌 내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재산을 버리고 소유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참혹한 형태의 죽음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그들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그들에게 있는 줄을(단순히 믿은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고린도후서 5:1)"[2]

그들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할 때, 우리의 길이 옳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성신의 증거를 얻을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3] 그 지식과 더불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을 우리의 유익으로 바꾸어 주시리라는 확신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무한히 커져 갑니다. (교리와 성약 97:8~9 참조)

"경건의 능력"으로 강화됨

우리는 첫 번째로, 권능을 부여하는 축복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하나님이 그분과의 성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부여하시는 신앙의 은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약의 힘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한 가지는 신성한 권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성약의 결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영향력 즉, "경건의 능력"(교리와 성약 84:20)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권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선택의지를 행사하고 그것을 받겠다고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식들에 참여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더해진 빛과 영적인 힘에 동반되는 더 많은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모든 의식, 특히 성전에서 행하는 의식을 통해, 우리는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109:22 참조) 이 "경건의 능력"은 개인적으로, 성신의 영향력을 통해서 옵니다. 성신의 은사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침례, 즉 성령의 침례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거두어 가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에서 기인한 은혜의 사자입니다.(니파이후서 31:17 참조) 그것은 아담이 받은 "속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모세서 6:65) 은사입니다. 고대의 사도들은 성신의 도움으로 모든 일을 견뎌 냈고, 신권 열쇠를 통해 복음을 그 시대의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약을 맺을 때, 성신은 우리의 보혜사이자 안내자이자 동반자가 됩니다. 성신의 열매는 "불멸의 영광의 평화로운 것들, 만물에 대한 진리, 만물에게 생명을 주어 만물을 살리게 하는 것, 만물을 알고 지혜, 자비, 진리, 정의, 심판에 따라 모든 권능을 지니는 것"(모세서 6:61)입니다. 성신의 몇 가지 은사 중에는 간증, 신앙, 지식, 지혜, 분별, 계시, 기적, 병 고침, 자애가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46: 13~26 참조)

여러분이 가르치거나 간증할 때 성신이 여러분의 말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이 적의가 가득한 상황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야 할 말을 알려 주고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100:5)라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는 것은 바로 성신입니다.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다음 단계의 과제를 극복하도록 계시해 주는 것은 바로 성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느끼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신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약의 정당성과 효능을 확인시키고 여러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봉하는 것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서 작용하는 성신입니다.(교리와 성약 88:4~5; 109:14~15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임

거룩한 성약은 기독교인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신권 의식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그것들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약으로 맺은 약속들을 충실하게 지키십시오.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의 성약이 최우선이 되고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시간과 방법대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며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

2009년 4월 연차 대회 말씀 "성약의 권능"에서.

주

1. 경전 안내서, "성약"; scriptures.lds.org 참조.
2. *Lectures on Faith* (1985), 67.
3. *Lectures on Faith*, 69–71 참조.

일요일 공과

이번 달 주제:
의식과 성약

무엇을 보나요?

복음 의식 안에 있는 상징들을 공부하고 그에 대해 숙고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교회 잡지

우리 주변은 상징들로 가득하기에 그에 대해 별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상징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예표, 그림자, 표상, 표시, 표적, 비유, 기념, 증거, 또는 증언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모세서 6:63 참조)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을 소개하시면서 제자들이 먹도록 빵을 떼어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누가복음 22:1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그 빵이 말 그대로 그분의 몸인 것은 아니지만,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빵은 그분의 몸과 그 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따라서 상징은 굳이 말로 하지 않고도 한 번에 그와 연관된 수많은 생각을 일으키고 전달하며 깊이와 의미를 더해 주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물론, 의식이 단순히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의식에는 신권 권세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는 실질적인 힘이 있습니다. 의식에는 또한 구주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성약에 대해 가르치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신권 의식을 받고 따르는 행위 역시 개인의 신앙과 겸손을 밖으로 나타내 보이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침례, 확인, 성찬 의식과 관련된 상징들과 그 의식들과 관련된 몇 가지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침례

물: *죄를 씻음, 깨끗하게 함, 정결하게 함*

흰옷: *순수함("그 옷이 씻겨져 희게 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이니, ……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정결하게 함을 받아[야] …… 하느니라."[앨마서 5:21]), 동등함.(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모든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기]"[니파이후서 26:33] 때문이다.)*

오른손을 들어 올림: *하늘에 이르게 함, 하늘에 증거함, 또한 맹세의 표시(창세기 14:22; 다니엘 12:7 참조)*

침수: *그리스도의 사망, 매장 및 부활(로마서 6:3~4 참조),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거듭남.("물[로 남]"[요한복음 3:5])*

확인

안수: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행하는 신체적 접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성신의 은사를 받음: *"불[의] …… 침례"로 불림(니파이후서 31:13), 깨끗하게 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거듭남.*

성찬

빵을 먹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함.(마태복음 26:26~29 참조), 생명의 떡("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요한복음 6:35],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요한복음 6:58])*

회중 앞에 빵과 물을 놓음: *피를 흘리는 희생을 그치게 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함(앨마서 34:13~14 참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의 희생"(교리와 성약 59:8)을 바침.*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음: *겸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 영원한 성약의 표시(교리와 성약 88:131 참조)*

빵을 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심, 그분의 육체적 사망,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분의 부활*

물(원래는 포도주)을 마심: *(겟세마네에서 병사들의 손에 고통을 겪으시는 동안,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요한1서 1:7) 하셨고 "성약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모로나이서 10:33)임; "생명의 근원 또는 모든 육체의 활력소"(경전 안내서, "피"; scriptures.lds.org)이며 희생을 통해 죄를 속죄하는 피(레위기 17:11 참조), 생명수(요한복음 4:14 참조)*

속죄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복음 의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바로 모두 상징과 비유로 이루어진 이 특별한 [성찬] 의식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쉽고 반복적으로 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67쪽.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일요일에 깊이 생각할 것들

- 침례, 확인, 성찬 의식 안에 있는 상징들은 구주와 여러분의 성약을 기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 매주 성찬식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 성찬식 동안 생각했거나 느낀 것을 일지에 적어 보세요.
- 성찬 안에 있는 상징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구주를 기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교회에서 이야기하세요.

우리들 공간

할아버지를 위한 침례

나는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이 성전 방문을 계획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모아 아피아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이 드문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무척 기뻐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았다. 영의 세계에 계신 그분들은 우리가 가족 역사를 탐구하고 그분들을 위해 의식을 수행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침례식 동안 나는 우리 일행의 한 청남이 우리 할아버지 파타가 아가발레를 위해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그분의 영이 그곳에 계심을 알았다. 나는 우리가 성전에서 할아버지를 위한 의식을 할 수 있어서 무척 기뻤다.

사이니 아가발레, 사모아

친구에게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십대인 나는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이나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열입곱 살 때, 자신을 몰몬이라 말하는 한 친구가 있었다. 나는 몰몬이 무엇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너희 교회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직접 알아볼게."라고 말했다.

내가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안 친구는 몰몬경을 주며 읽어 보고 그에 대해 기도해 보라고 했다. 그렇지만 강요는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 책을 펼치다가 앞쪽에 친구가 적어 둔 간증을 보게 되었다. 그 간증을 읽는데, 몰몬경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니파이전서부터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가정의 밤에 참석했고, 친구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모든 것이 딱 들어맞는 듯한 느낌이었다. 곧이어 나는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침례를 받은 후, 주님의 참된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통해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충실할 때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성신이 어떻게 나를 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교회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면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졌다.

몰몬경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그 책을 전해 준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진정한 친구는 그런 중요한 정보를 나눠 주는 것이다.

마이클 피, 미국 오하이오

사모아 아피아 성전 사진 촬영: 웰든 시 앤더슨

랜들 엘 리드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

일,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일이 늘 재미있지만은 않겠지만, 일을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알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재미있게 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데이트를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무척 좋았습니다. 일보다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해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는 주택 건축을 하셨는데, 이따금 저희 4 형제가 아버지 일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그 일은 고되고 힘들었기에 정말로 하기 싫은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할 작업 일정과 완공해야 할 공사가 있었기에 일이 끝날 때까지는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일을 잘 마쳤을 때 얻는 만족감

집을 짓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 정밀성을 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밀성이 요구되지 않는 것 같았던 한 가지 일은 집의 기초판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집의 토대를 놓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초판을 파고 붓는 것입니다. 기초판은 콘크리트로 된 받침으로, 건물 토대보다 더 넓습니다. 기초판을 붓고, 굳어지면, 그 기초판 위에 건물 토대를 붓습니다. 그런 다음 그 위를 흙으로 메웁니다.

저는 종종 기초판이 완벽한 직각을 이루는 것이 정말로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엔 흙으로 그 위를 덮을 것이기에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직각이 아니더라도 지지 구조물을 약하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초판이 직각이고 평평하기를 원하셨기에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정하셨으며, 집을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돌아보면서 저는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실 때 모든 것에, 심지어 그 집 소유주가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부분에까지도 한결같은 주의를 기울이셨음을 깨닫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신 것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훌륭한 건축업자로서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일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냈으며, 소유주들이 그 진가를 인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만족감을 얻으셨습니다.

해야 하는 일을 얼마나 잘해 내는지를 알아 주는 사람이 여러분과 주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노력을 잘 아십니다.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성실함, 신뢰성, 유용한 기술을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 주님이 주신 수확의 법칙이 지닌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7; 또한 교리와 성약 130:20~21 참조)

태도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기초판을 판다는 것은 장시간 동안 고된 일을 한다는 뜻이며, 그렇기에 저는 그 일에 대해 늘 좋은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것에 대해 불평할 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라. 그러다간 너의 축복을 잃게 될 거야. 그리고 어찌 되었든 간에 너는 일을 해야 한단다!" (교리와 성약 58:28~29 참조) 어머니가 옳았습니다. 불평을 한다고 해서 절대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저 일에서 얻는 만족감과 많은 축복만 앗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기분 좋게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오히려 시간이 더 빨리 가고, 일도 더 잘되고, 불평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태도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저는 더욱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축복합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여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할 때, 여러분은 앨마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얼마간의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는 것"에서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은 "[여러분의] 기쁨[입니다.]"(앨마서 29:9)

권유

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일은 현세에서 자립과 성취, 기쁨의 원천입니다. 즐겁게 일할 때, 여러분이 심은 씨앗 덕분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배웠던 그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 다음과 같이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고, 활기찬 태도로 임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즐거워졌는지를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

진흙투성이 신발로 파이프 옮기기

살수관을 옮기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싶었다.

레이먼드 엠 알톤

"감사합니다, 로울리 감독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 정원회 고문인 홀렛 형제님은 감독님의 손에서 회람판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명단에 교회 농장에서 일할 사람들의 서명을 받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주에 일손을 거든다면 주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회 농장이라고 하니, 별로 재미있는 일 같지가 않았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은 살수관을 옮기는

것입니다."

살수관을 옮긴다고! 그 말에 두려움이 앞섰다. 몇 달 전에 어머니가 여름철 일자리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다. 우리가 사는 작은 도시에서 여름철 일자리라고 하면 거의 한 가지 일을 의미했는데, 바로 파이프를 옮기는 일이었다. 그래서 여름 내내 나는 사촌 스캇과 함께 파이프 옮기는 일을 했었다.

그 일을 하는 첫날, 우리는 우두커니 서서 광대하게 펼쳐진 초록빛 풀밭을 바라보았다. 12미터 길이의 파이프들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수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는 듯했다. 짧게 훈련을 받은 후, 스캇과 나는 첫 번째 파이프를 분리했다. 스캇이 파이프 한쪽을 위로 올리자, 차가운 물이 튀면서 내 테니스화를 흠뻑 적셔 버렸다. 우리는 질척한 진흙 속에서 파이프를 들어 올렸고, 그다음 입관에 다시 연결했다. 다음 파이프를 가지러 되돌아올 때에는 신발이 진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천근만근이었다. 결국, 우리의 몸과 정신은 진흙, 물, 땀으로 다 흠뻑 젖어 버렸다.

그 일을 떠올린 후, 다시 교회 농장 일을 자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나는 더듬거리며 "아, 저는 못 갈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아침마다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요."

"그거야 문제 될 것 없네." 훌렛 형제님이 말씀하셨다. "우린 언제나 오후에 교회 농장에 가거든." 그러고는 명단을 돌리셨다. "여러분은 각자 신권에 성임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권능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모두 힘을 보태면 일은 전혀 힘들지 않을 거예요."

명단이 나에게 건네졌다. 믿을 수 없게도, 내 앞의 모든 사람이 이번 주에 매일 농장에 가겠다고 서명을 해 놓았다. 다들 이 일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른단 말인가? 나에게 가해지는 의로운 또래의 압력에 나는 큰 부담감을 느꼈다. 마지못해 나는 서명을 하고 명단을 다음 사람에게 넘겼다.

월요일 오후, 방에 앉아 아침일로 고단해진 몸을 쉬고 있는데, 밖에서 훌렛 형제님이 울리는 경적소리가 들렸다. 나는 잠시 주저하다가 냄새 나는 축축한 작업복으로 다시 갈아입었다.

우리는 이내 교회 농장에 도착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들판을 향해 달려갔다. 뒤떨어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돌맹이를 툭툭 차고 있는데, 어깨에 누군가의 손이 닿는 것을 느끼고는 깜짝 놀랐다. "와 줘서 고맙구나." 훌렛 형제님이 격려해 주셨다. "네가 오늘 아침에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안단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함께 걸었다. 그러다가 형제님은 조를 편성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셨다.

나는 그분을 지켜보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그날 아침에 열심히 일했다. 지쳤고, 냄새도 나고, 그리고 집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훌렛 형제님은 어떤가? 그분 역시 아침에 열심히 일하셨다. 그리고 그건 모두가 다 똑같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곳에 있으면서 왜 행복해하는 걸까?

나는 얼른 사람들 옆으로 갔고, 우리는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 나는 내가 숭고한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기운을 북돋우려 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한 그런 발상은 이내 사라져 버렸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거들 때, 살수관을 정말 빨리 옮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내가 정말로 재미를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일을 완전히 끝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이 되리라고 예상했던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모두가 함께 거들었기 때문에 그 일은 전혀 희생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았다.

훌렛 형제님은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우시며 나를 돌아보셨다. "오늘 도와주어서 고맙구나. 네가 열심히 일해 줘서 모두가 쉽게 해낼 수 있었단다." 그분은 빙그레 웃으시며 윙크를 하셨다.

나도 씩 웃어 보였다. "고맙습니다. 제 생각엔 모두가 함께 일한 덕분인 것 같아요." 나는 차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았다.

훌렛 형제님은 기어를 넣고 차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럼, 내일도 갈 거지?" 형제님이 열린 창 사이로 물으셨다.

나는 "물론이죠. 내일 뵐게요." 하고 대답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삽화: 제이크 파커

해답을 찾아서

제가 교회에 대해 말하면, 친구들은 우리 교회에는 규칙이 너무 많아서 관심을 갖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규칙"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익숙한 것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친구들이 양치질을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 있는데 매일 양치질을 하도록 배운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엄한 규칙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양치질은 단순히 하나의 습관이고 생활양식이기에, 여러분은 그것이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양치질을 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초래하는 문제와,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따르는 표준이 구속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나은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돕기 위해 주님과 그분의 종들이 우리에게 표준을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언제나 축복이 따라오며, 그 축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신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이런 유익과 축복을 설명하려고 노력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규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실제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들을 시험해 보는 것이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요한복음 7:17 참조) ■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도록 하셨다는 의미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존재의 몇 가지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사람도 또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 예지 곧 진리의 빛은 창조되거나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리될 수도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93:29)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동기가 무작위적이거나 임의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또한 압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영들과 영광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며, 자신이 다른 영들보다 높은 지성을 가진 존재임을 스스로 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셨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10쪽; 또한 모세서 1:39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발전하여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기에 우리의 영을 창조하고 구원 및 행복의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서 이 지상의 경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간결한 최선의 대답은, 곧 어떤 일에서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즉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

일이 항상 생각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미와 모험을 즐기려다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힐라맨서 3:29 참조)

사진 삽화: 데이비드 스토커

올바른 동기로

라셈 말루프

2011년에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으로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들을 얻었다. 나는 선교 사업을 나가기로 결정했지만,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쉬웠던 것은 아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십 대 시절까지 축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축복받았다. 나는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팀과 함께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 국가들을 다니며 여러 국제 대회에서 파라과이를 대표했다.

나는 운이 좋게도 그런 운동과 더불어 적절한 교육과 영적인 훈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부모님을 두었다. 어머니의 신앙과 간증은 분명 나의 신앙과 간증이 자라난 씨앗이었다. 어머니의 충실함 덕분에 바쁜 경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미나리에 참석했다.

어린 시절 이후로 전임 선교사 이야기는 숱하게 들었지만, 선교 사업을 할지에 대해 마음을 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와드 감독단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이셨을 때, 나의 마음이 바뀌었다. 아버지는 나의 선수 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계셨기에 아버지에게 그것은 어려운 결정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축구 연습이나 시합을 할 때 늘 곁에 계셨으며,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런 까닭에 감독단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선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쓰는 시간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지지를 받으신 그날, 성찬식 시간에 나는 내가 올바른 동기로 중요한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헛되고 말리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간증 시간에 어떤 분은 우리가 순종하면 가족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나는 그 말씀에 감동했고, 우리 가족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공과 시간에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왔다. 주님께 봉사하라고 속삭이는 영을 아주

그 어떤 것도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얻는 큰 기쁨과 평안, 그 많은 기적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삽화: 앨릭스 웨스트게이트

여러분의 선교 사업 시절

lds.org/go/going320에서 뉴질랜드 럭비 선수 시드니 고잉에 관한 영상(한국어 자막)을 볼 수 있다.

봉사함

강렬하게 느꼈기에, 나는 가정의 밤 시간에 부모님께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결정을 말씀드렸다.

그 결정은 나의 대학 교육을 중단하고 내가 속한 축구 클럽과 맺은 5년짜리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자, 주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었다.

선교사 지원서를 제출한 후에 나는 2011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을 청취했다. 그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은 프로 럭비 선수이자 뉴질랜드 국가대표였던 시드니 고잉의 선교 사업에 대해 들려주셨다. 고잉 형제님이 선교사로 봉사한 후 귀환하여 프로 선수로 계속 활약했다는 사실은 나에게 교훈을 주었다. 선교 사업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는 그 말씀을 거듭 청취하면서 축복을 받았고, 마음에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가족들과 와드 및 스테이크 회원들이 나눠 준 수많은 간증은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결정을 굳건히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도 큰 격려가 되었다.

또 하나의 기쁨은 내가 선교 사업을 나가겠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친한 친구 세 명도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후 선교사가 되어 지역 지도자, 선교부 회장 보조, 지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켰다.

나는 이제 3년 전의 내가 아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주님은 나를 "여러 배"(마태복음 19:29) 더 많이 축복하셨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속죄, 성결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 그리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지상에 복음이 회복된 이 후기의 기이한 일과 경이(이사야 29:14 참조)에 대해 살아 있는 실질적인 간증을 갖고 있다.

나는 이 성스러운 기간에 대해, 그리고 내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선교부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알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무한한 애정과 감사함을 느낀다. 그들 사이에서 봉사하는 것만큼 큰 축복도 없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얻는 큰 기쁨과 평안, 그 많은 기적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

글쓴이는 파라과이에 산다.

몰몬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공항에서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

브렌다 헤르난데스 루이스

나는 멕시코에서 미국 몬태나로 여행하는 중에 콜로라도 주 덴버에 잠깐 머물렀다. 나는 그 공항을 이리저리 다니며 대형 유리창을 통해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전에 비행기를 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공항은 정말로 커 보였다.

나는 표를 보면서 비행기가 출발하려면 아직 두 시간이 남았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앉아서 책을 읽을 곳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앉을 자리를 찾다 나는 의기소침해졌다. 거의 모든 자리가 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인 듯이 보이는 한 할머니 옆에 앉기로 했다. 할머니는 무섭게 보이지 않는 유일한 분이었다.

한 시간 정도가 흐른 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눠 보기로 마음 먹었다. 내 소개를 했을 때,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 같아 보였고 손주를 무척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나에 대해 조금 물으셨고, 나는 멕시코에서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할머니가 내 종교에 대해 물으셨을 때,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임을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우리 교회를 처음 들어 보신다고 하셨다.

나는 빙그레 웃으면서 "몰몬이라고도 불리죠."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할머니는 태도가 즉시 바뀌었다. 표정과 말투가 싹 달라지셨다. 할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듯 했다. 대화가 끝이 났음을 느꼈지만, 나는 계속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할머니의 종교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할머니는

삽화: 스티븐 킬르

주저 없이 "난 가톨릭 신자야."라고 하셨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해할 수 없군. 넌 참 좋은 아이인데. 예의도 바른 것 같고. 왜 몰몬이 되고 싶어 한 거지?"

나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나는 속으로 기도를 드리며 후기 성도가 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했다. 나는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이 정말 좋다고 하면서, 이 복음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정확한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휘둥그레한 눈으로 "몰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에 웃지 않으려고 애썼다. 오히려 미소를 지어 보였고, 지금이 바로 할머니에게 진리를 전할 기회임을 깨달았다. 나는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 몇 가지를 설명했다. 나는 할머니에게 구원의 계획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다. 할머니의 의심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지만, 나는 간증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그 큰 공항에서 나는 조셉 스미스와 살아 있는 선지자 및 사도들에 관해, 그리고 내가 복음과 몰몬경에 대해 느끼는 사랑에 관해 용기를 내어 간증을 전하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비행기에 탈 시간이었다.

그 오후의 일은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의 간증을 강화해 주었다. 할머니에게 간증을 전해서 기뻤고, 우리 교회 회원들에 대한 할머니의 생각이 바뀌도록 도울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제 나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대해 물으면 더욱 자신감 있게 대한다. ■

글쓴이는 멕시코 치와와에 산다.

특별한 증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영을 얻기에 **합당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행복해지는 음악을 들으세요.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세요.

잘못을 했을 때에는 회개를 하세요.

단정한 옷차림을 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봐 주시고, 성신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삽화: 매트 베이넌

"청소년들에게 주는 권고",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16~19쪽에서 발췌함.

신앙에 대한 나의 공과

에머 알, 11세, 미국 텍사스

몇 년 전에 저는 가정의 밤 시간에 신앙에 대한 공과를 가르쳤습니다. 큰 오빠가 신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면서 가족이 다 함께 한참 동안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캔털루프 멜론에서 나온 씨앗 하나를 작은 컵에 심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신앙은 마치 씨앗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잘 보살피면, 씨앗은 싹을 틔웁니다.

우리 가족은 텃밭에서 수확을 많이 거둔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식물을 잘 키워서, 신앙에 대한 훌륭한 예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컵을 창가에 두고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저는 씨앗이 자라나길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다리다 거의 포기할 뻔 했지만, 일주일쯤 후에 드디어 초록빛 싹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싹이 자라도록 한 주를 더 창가에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뒤뜰 화단에 옮겨 심었습니다.

저는 그 식물을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물은 쑥쑥 자라났습니다. 저는 정말 신이 났습니다!

몇 주가 흐른 뒤, 그 식물은 꽃이 피더니 어느새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뿌린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서 덩굴이 되고 캔털루프 멜론 일곱 개가 열리는 식물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에게 그 일은 기적과도 같았고, 또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그 열매의 맛은 앨마서 32장 42절에서 말한 것처럼 달콤했습니다. "또 말씀을 가꾸어 그것으로 너희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는 너희의 부지런함과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인내로 말미암아, 머지않아, 보라 너희가 지극히 귀하고, 감미로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감미로[운] ……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

그 경험을 하면서 저는 무척 기뻤고, 우리 가족은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참된 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여러분도 해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리아호나*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 보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 때라든지 또는 친구를 교회에 초대했던 일에 관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liahona.lds.org나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또는 3쪽에 있는 주소로 편지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이 속한 와드 또는 지부의 이름과 부모님의 동의서도 꼭 함께 보내 주세요.

삽화: 케이티 메더

몸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리의 몸은 아주 중요하며 성스럽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부르십니다.(고린도전서 3:16~17 참조) 그리고 몸이 있으면 재미도 있습니다! 몸이 있으면 달리기, 노래 부르기, 높은 곳 오르기, 웃기, 그림 그리기, 수영하기, 춤추기, 그리고 다른 재미있는 활동들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몸을 사용하여 배우고, 사람들을 돕고, 자녀를 낳으며,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몸을 가지고 있을까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몸이 없는 영이었습니다. 몸을 갖기 전에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얻도록 우리를 지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려면 우리는 영과 몸 둘 다 필요합니다. (교리와 성약 88:15 참조)

제 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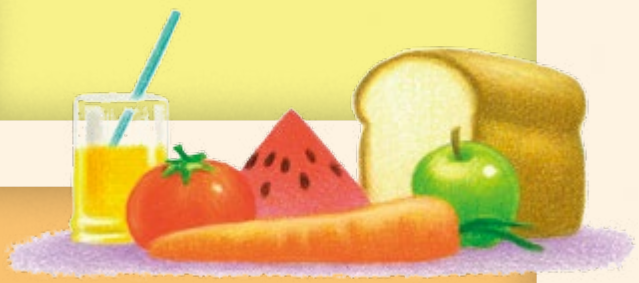
ILLUSTRATIONS BY STEVE KROPP

제 몸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면 어떡하나요?

때로 우리의 몸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거나 움직이거나 일하지 않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몸이 어떤 모습인가와 관계없이 우리는 몸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곳 지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며, 완전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앨마서 40:23 참조) 우리의 몸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왜 똑같지 않을까요?

몸의 생김새와 피부색, 그리고 몸집도 각각 다른데,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일부랍니다. 몸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습니다.(창세기 1:26 참조) 그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완전한 몸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몸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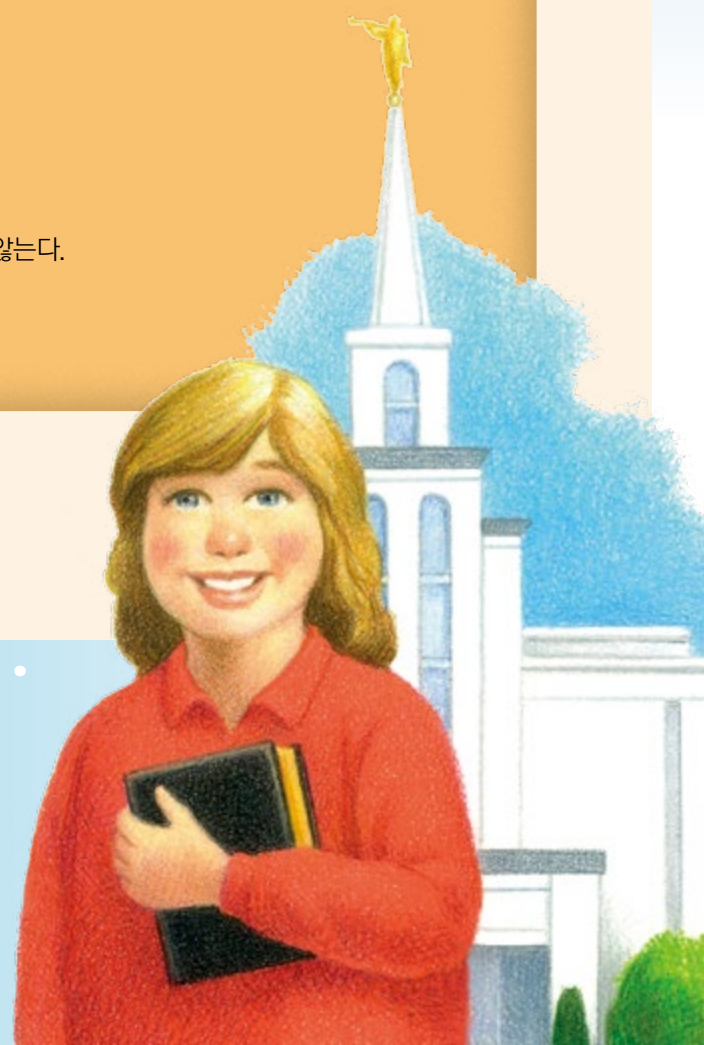
제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우리는 귀중한 보물을 돌보듯이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지자들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을 돌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한다.
- 옷을 단정하게 입고 몸을 늘 깨끗하게 한다.
- 다른 사람들의 몸을 존중한다.
-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구멍을 뚫어 장식을 달지 않는다.
- 마약이나 술, 담배, 커피, 차를 취하지 않는다.
-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며, 위험한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의 몸을 정성껏 돌볼 때, 우리는 성신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으로 몸을 잘 돌본다면, 우리는 축복받을 거예요!
(모사이야서 2:41; 교리와 성약 89:18~21 참조)



성전입니다

머리사 위디슨
교회 잡지

이번 달 초등회 주제에 대해 더 배워 봅시다!

우리는 침례와 확인을 통해 교회 회원이 된다

제니퍼 메디

마리엘라는 찡그린 얼굴로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무슨 일 있었니?" 정원에서 꽃을 심고 계시던 엄마께서 물으셨어요.

"소니아가 저랑 놀기로 약속했는데 안 놀아줬어요." 마리엘라가 말했어요. 마리엘라는 엄마 곁으로 가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 앉았습니다.

"안 됐구나." 엄마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 너는 다음 주에 침례와 확인을 받을 때, 성약이라고 부르는 매우 중요한 약속들을 하게 될 거야."

"정말로요?" 마리엘라가 물었어요.

마리엘라는 침례를 받게 되어서 신이 났어요.

엄마는 노란색 꽃들을 땅에 심으셨어요. "너는 계명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게 될 거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약속하게 되지. 네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실까?"

마리엘라는 초등회에서 배운 것을 떠올려 봤어요. "성신이 저와 함께하실 거예요."

"맞아."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교회 회원이 되는 거야.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마리엘라가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건 말이야,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그분께서 네가 하길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란다." 엄마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리엘라는 보라색 꽃을 손에 들고 빙빙 돌렸어요. "학교에서 새로 온 친구 옆에 앉을 수 있어요. 또 소니아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할 수 있죠." 마리엘라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좋은 생각이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찬을 취할 때, 네가 맺은 약속들을 기억할 수 있단다."

마리엘라는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또 다른 약속도 알고 있어요. 꽃에 물을 주면, 예쁜 정원이 생기는 거예요!"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노래와 성구

- "침례", *어린이 노래책*, 54쪽 (1절과 3절)
- 요한복음 3:5

가족과 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마리엘라는 침례 성약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집이나 학교, 다른 곳에서 더욱 더 예수님처럼 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찬을 취할 때 침례 성약에 대해 생각하자는 가족 목표를 세워 보세요.

나는 침례 성약을 지킬 수 있어요

침례 성약에 대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 틀과 슬라이드 사진을 오려냅니다. 두 장의 슬라이드 사진을 풀이나 테이프로 붙여서 한 장의 긴 슬라이드로 만듭니다. (A 부분과 B 부분을 서로 겹쳐 붙입니다.) 풀이나 테이프를 사용해서 틀과 슬라이드 사진을 두꺼운 종이에 붙입니다. 틀에 있는 점선을 따라 두 곳에 칼집을 냅니다. 틀의 앞쪽으로 사진이 보이도록, 칼집을 낸 틈으로 슬라이드 사진을 끼웁니다.

나는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침례 받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을 맺습니다.

A

침례 성약을 지킬 때, 내가 성신의 인도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성찬을 취할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합니다.

B

나는 침례 성약을 **지킬 수 있어요**

삽화: 레이첼 호프만-베일스 오클쪽 3D 그래픽 작업: 엔리케 플로레트

우리들 이야기

레슬리 큐, 6세, 에콰도르

라디 큐, 9세, 에콰도르

사탸 에스, 11세,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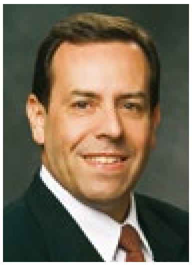
"몰몬경", 윌리엄 엠, 10세, 브라질

여러분의 그림, 사진 또는 경험을 온라인 liahona.lds.org나, liahona@ldschurch.org의 제목란에 "Our Page"라고 적어 이메일로 보내거나 3쪽에 나와 있는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각 제출물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의 성명, 성별, 나이(만 3세에서 11세), 부모님의 성명, 와드 또는 지부, 스테이크 또는 지방부, 자녀의 원고와 사진을 사용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서(이메일도 가능함). 구주의 그림은 그리지 마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원고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초등회 발표에서 저는 "나는 하늘에서 살았네"를 피아노로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나 성전 보고 싶어" 수화 발표를 지휘했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면"을 배우는 게 제 목표였어요. 저는 주님께서 제게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재능을 키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써야 하죠. 그러면 제 재능은 더 커질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루나 마리솔 아이, 8세, 아르헨티나



에두아르도 가바렛
장로
칠십인 정원회

봉사하기 위한 준비

"네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앨마서 37:35)

저는 우루과이 미나스라는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6살이었을 때, 어머니와 누나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 가입하지는 않으셨지만, 저희가 교회에 가는 것을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지혜의 말씀도 지키시고 십일조도 바치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지부는 회원이 매우 적어서 교회 건물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를 빌려서 교회 모임을 했습니다. 그 집 바깥에 있는 작은 수영장은 침례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저는 침례를 받게 되어서 매우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기로 한 날은 비가 내리고 몹시 추웠습니다. 엄마는 날씨가 추우니까 그날 침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꼭 침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 흰 옷을 입고 수영장으로 들어갔던 것이 기억납니다. 물이 차가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전혀 춥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았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 안 되어 지부의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 회원들이 집회소 건축을 도왔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땅에 떨어진 못과 나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줍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봉사하는 법을 배웠고, 장차 교회 봉사를 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어리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

삽화: 에밀리 데이비스

저는 브라질에 사는 페드로입니다

애미 제인 레빗

페드로는 남아메리카에서 제일 큰 나라인 브라질에 살고 있습니다. 페드로의 집은 브라질 파라나 주의 주도인 쿠리치바에 있습니다. 페드로는 엄마, 아빠, 형, 여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가족들은 함께 성전을 방문하고 해변가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페드로는 선교사가 되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안녕, 친구들!" (포르투갈어)

저는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전에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브라질 원주민들의 예술과 역사랍니다. 대부분의 학교 친구들은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제가 무엇을 믿는지 말해 주고 함께 교회에 가자고 초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경전 이야기는 니파이가 놋쇠판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저는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12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상을 받을 겁니다.

저는 그림 그리기도 좋아합니다. 매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림을 그립니다. 도서관에 가서 미술 책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축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운동은 합기도인데, 합기도는 한국의 무술입니다.

이 다음에 크면,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마나우스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아마존 숲이 있거든요. 그다음에는 예술 디자이너로 일하고 싶습니다.

1월호에 여권 도장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챘나요? 지금 오려서 붙일 수 있어요!

전 성전이 보고 싶어요

제 가족은 쿠리치바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함께 정원을 걷기를 좋아합니다. 성전이 지어졌을 때 저는 겨우 4살이었지만, 일반 공개 모임 때 구경을 했던 일은 기억이 납니다. 그 일은 저에게 특별한 추억이랍니다.

출발해 봅시다!

페드로의 가방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여러분은 이것들 중 어떤 것을 가방에 챙겨 넣고 싶나요?

오른쪽 삽화: 토마스 에스 차일드

사라는 걷고 또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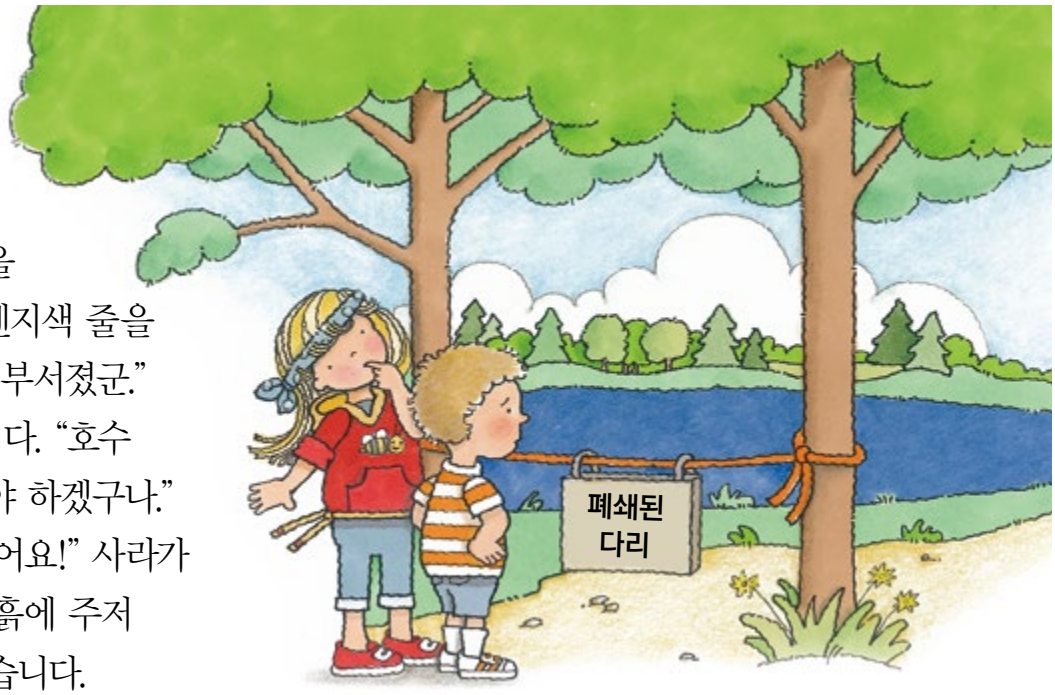
하이디 폴먼
실화에 근거

사라는 좋아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실버 호수 주변을 여행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 조쉬는 앞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오래지 않아 햇살이 사라의 팔을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차까지 거의 다 왔어."

삽화: 줄리 영



그런데 사라는 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오렌지색 줄을 보았습니다. "다리가 부서졌군."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둘레를 다시 걸어가야 하겠구나."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조쉬는 흙에 주저앉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얘들아, 개척자 이야기를 기억하니?"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는 개척자들을 좋아했습니다.

"개척자들은 아주 먼 길을 걸어야만 했단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무지무지 더웠고, 때로는 엄청나게 추었어. 그래도 계속해서 걸었지. 새로운 고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집과 성전을 세웠단다."

사라는 개척자들이 계속해서 걸었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계속해서 걷기로 했습니다. 사라는 조쉬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힘내. 우리는 좀 더 걸어야 하거든.”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색 칠 하 기

삽화 : 마크 더블유 콜빈스

여러분의 생활은 초기 개척자들의 생활과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점에서 같을까요?

육지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가까운 자연 보존 구역에 있는 섬으로 카누 여행을 떠난다니, 아들과 더 가까워질 완벽한 기회 같았다. 우리 와드 아론 신권 지도자들과 청남들은 여러 달 동안 그 여행을 계획해 왔으며, 나도 함께 갈 수 있게 되었다.

내 아들 맥케이는 아주 건장했으며, 고등학교에서 세 개의 운동 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지도자들이 우리를 같은 카누에 타게 한 것은 아마도 그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필요하면, 그 아이가 힘껏 노를 저어 주리라는 걸 알았던 것이다. 나 역시 카누를 타 본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훌륭한 팀을 이루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호수 위에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도 간절했다. 맥케이는 엄마를 여읜 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나는 그런 아들에게 필요한 것들과 관심사에 항상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신경을 써 주지는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훈련을 마쳤고, 구명 조끼도 입었으며, 수영하는 법도 알았고, 노련한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은 경험도 있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것은 바람이었다. 노를 저어 몇 킬로미터를 간 후, 호수 중앙을 가로질러 호숫가에 가까워졌을 무렵, 맞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다른 카누들은 호숫가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맥케이와 나는 마지막 배에 타고 있었다. 파도가 점점 더 거세어져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방향이 틀어졌다. 나는 진이 다 빠졌고, 불안했다. 열심히 물을 헤치고 힘을 다해 노를 저어 진로를 원래대로 바꿔 보려고 했으나 배는 계속 제자리인 것 같았다.

아들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견디어야 하는지에 대해 강력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더는 노를 저을 수 없겠다고 자포자기할 무렵, 우리 배는 뒤집혀 버릴 지경이 되었다. 그때 아들이 말했다. "아빠는 파도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육지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언덕에 있는 나무들이 보이세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이 옳았다. 그 나무에 집중하자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팔에 새로운 힘이 불끈 솟아나는 듯했다. 맥케이는 노가 동시에 움직이도록 박자를 세 주었다. "하나. 둘. 하나. 둘." 배가 서서히 움직였다.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달려와 도와주었고, 우리는 앉아서 가쁜 숨을 돌렸다. 그날 밤 텐트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함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주님의 등대에 관해 가르치신 것을 기억했다. "주님의 등대는 인생에 몰아치는 폭풍우 사이에서 빛을 발합니다. 또한, 이렇게 외칩니다. '이곳이 안전한 길입니다. 이곳이 본향으로 향하는 길입니다.'"[1]

호숫가에 있던 나무 한 그루가 그날 오후에 우리에게 등대가 되었다. 거의 체념할 뻔 했을 때, 아들은 파도를 보는 대신 해변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현명하게 조언해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노를 저었다.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믿고, 순종하며, 견디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126쪽.

사진: MAZZZUR/ISTOCK/THINKSTOCK

삽화: 로버트 티 배럿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토마스 에스 몬슨은 어렸을 때 토끼와 **비둘기**를 여러 마리 길렀다. 친절하기로 유명한 그는 추수감사절에 음식이 필요한 가족에게 **애완용 토끼**들을 주었고, 성탄절 선물을 받지 못한 소년에게 자신의 **기차**를 주었다. 토마스 에스 몬슨은 자라서, ***데저렛 뉴스*** 신문사에서 출판 일을 했다. 그는 사도로서 동독일에 첫 번째 스테이크를 조직했고, 교회가 **독일 프라이버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얻었다. 몬슨 회장은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조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호에서

청년 성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

42쪽

구주께서 값없이 주신 속죄의 사랑을 이해하면, 온전함에 대한 부정확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

48쪽

거룩한 성약으로 기독교인들은 강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통해 힘을 얻습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이

신앙에 대한 나의 공과

에머는 가족들에게 신앙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캔털루프를 키웁니다.

67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4 021098 7320 KOREAN
10987 320